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전승실태
조사 연구

지도교수 이 경 화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안 미 선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전승실태
조사 연구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안 미 선

안미선의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권 순 용 인
심사위원 황 해 익 인
심사위원 이 경 화 인

2003년 8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전승실태 조사 연구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안 미 선
지도 교수 이 경 화

본 연구는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대상 개별 면접 및 현대 유치원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 전통 사회의 산육속을 조사하고, 이러한 전통 산육속의 전승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특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전승실태를 통해 육아문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전통 산육(태교, 출산과정)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전승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제주도 전통 육아속(양아, 의례, 심리처방적 습속)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전승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산육문화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현대적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만 60세 이상 여자 노인 134명과 제주도내 유치원 학부모 250명이며, 연구 도구는 이경화(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면접지와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노인 면접지의 자료처리는 빈도 및 백분율의 기초통계와 분석 틀에 따라 내용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부모설문지의 자료처리는 설문지를 통해 회수된 자료들은 Spss Windows용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응답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 산육의 특징과 전승실태를 보면, 태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임신부의 보호에 대한 점은 소극적이었으며, 출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자력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출산했던 자세, 메밀로 만든 음식을 출산후 음식으로 먹은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승실태에 있어서 태교의 필요성과 출산 후에 먹은 음식인 메밀가루가 전승이 되어오고 있으나, 태줄과 태반처리에 있어서는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았다.

둘째, 전통 육아속의 특징과 전승실태를 보면, 수유태도나 이유시기, 대소변 훈련 등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찾기 힘들었던 점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승 할망에게 감사 드리는 치셋메와 삼일 상을 차리는 사흘메가 중시되었으며, 칠 일이나 백일, 돌을 기념하는 행사는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아기구덕의 활용도에 있어서 매우 높았으며, 사용시기도 길었던 점과 심리 처방적 습속으로 침 맞히기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승실태에 있어서 수유시기, 이유시기, 아기구덕의 제작방법, 대소변 가리는 훈련방법 등은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고, 수유자세와 수유시의 주의사항, 아기구덕의 활용방법, 아기행사 때 할망상 차리기와 행사 때의 방법, 음식, 입힌 옷, 심리적 처방습속은 대부분 전승되어 오고 있다.

셋째, 산육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전통적인 육아관과 현대적 육아관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육아습관의 유사성에 대해서 전통과 현대 육아관의 인식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차 례>

국문초록	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3
II. 이론적 배경	4
1. 제주도 전통 사회의 특성	4
2. 문화와 산육숙	6
3. 제주도 전통 산숙	7
4. 제주도 전통 육아숙	9
III. 연구방법	15
1. 연구대상	15
2. 연구 도구 및 절차	16
3. 자료분석	17
IV. 연구결과	19
1. 전통 산숙의 전승실태	19
2. 전통 육아숙의 전승실태	25
3.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42
V. 요약 및 결론	46
1. 요약	46
2. 결론	48
참고문헌	52
부 록	54
Abstract	70

<표 차 례>

<표Ⅲ-1> 노인면접 대상자 현황	15
<표Ⅲ-2> 부모설문 대상자 현황	16
<표Ⅲ-3> 설문지 구성	17
<표Ⅲ-4> 면접자료 내용분석	18
<표Ⅳ-5> 태교의 권장언행	20
<표Ⅳ-6> 태교의 금지언행	21
<표Ⅳ-7> 출산 후 먹은 음식	23
<표Ⅳ-8> 태반, 탯줄 처리방법	24
<표Ⅳ-9> 수유시 주의사항	26
<표Ⅳ-10> 목욕시키는 간격	27
<표Ⅳ-11> 목욕시킬 때의 주의 사항	28
<표Ⅳ-12> 구덕재료 및 제작 방법	29
<표Ⅳ-13> 대소변 훈련법	30
<표Ⅳ-14> 돌 음식	34
<표Ⅳ-15> 돌 방법	35
<표Ⅳ-16> 눈 다래끼 났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	37
<표Ⅳ-17>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	38
<표Ⅳ-18> 이를 뽑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	39
<표Ⅳ-19> 침을 맞힌 이유	40
<표Ⅳ-20> 침의 효과	41
<표Ⅳ-21> 육아습관의 유사성	42
<표Ⅳ-22> 육아관의 장점	43
<표Ⅳ-23> 육아관의 단점	44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전통은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전해 내려오는 어떤 민족이나 사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으로 크게는 민족, 작게는 지역단위의 역사·사회·문화의 계통과 가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고, 그 민족 또는 지역공동체의 삶의 양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제주지역의 여성의 역할과 가족·친족 조직형태 및 권력구조 등의 전통은 한국사회의 삶의 양식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지니고 있음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는 수 천년동안 한반도와 고립되어 독자적인 생활공간을 유지해 왔던 상황과 함께 환경적으로는 토양이 척박하고 바람이 많고 돌이 많아 흉년이 계속되어 생활고를 겪어야 했던 제주는 이러한 여건 위에 형성된 토착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상호 융합하면서 독특한 전통을 만들어왔다(제주도교육청, 1996).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 사회는 열악한 환경적 조건을 극복해 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사회로서 남녀를 막론하고 기력이 남아있는 한 노동에 의지해야 했으므로 남녀노소가 열심히 일하는 빈부의 차가 별로 없는 평등사회, 즉 노동의 평등, 복식의 평등, 재산상속의 평등한 사회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의 경우 가사노동 이외에도 대부분의 밭일과 해녀 등의 일을 하는 등 노동량이 육지에 비해 상당히 많았으며, 그 역할도 남성과 거의 대등하게 요구되었다. 그러한 여성의 노동력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증대되고 적극적 활동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그들에게 ‘칠거지약’, ‘남녀칠세부동석’ 과 같은 주자주의적인 원리가 강하게 작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가족의 권력 구조면에서도 여성의 의식 구조가 육지 전통 가족 내의 여성들에 비해 상당히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철저한 장남분가, 재산상속의 균분 경향, 촌락내혼과 문중조직의 약화, 이혼과 재혼에 대한 사회적 규제의

약화, 높은 이혼율과 재혼율, 육지와 상이한 혼인의례, 사혼의 관습, 조상제사의 분할 등의 제주의 전통은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한 조선 중기 이후의 전통적인 한국가족의 역할과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전통적 육아문화 또는 육아관련 민속 또는 풍속도 제주도만이 갖는 독특한 의식과 양식이 있음을 여러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다.

전통 산육속(産育俗)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개 문헌자료에 근거하고 있어 전통사회의 실제 생활에서 수집·발굴된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조사 자료를 포함하지 못하는 제한을 지니고 있었다(오미경, 1991; 오선영, 2001; 하수연, 1999; 한양명, 1999). 그리고 전통 산육속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가 한 반도 중심의 역사 자료를 중심으로 다루면서 제주지역의 산육속에 관해서는 언급이 미흡하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방언과 민요, 설화 등 제주도는 여러 분야에 걸쳐 민속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는 반면에, 전통 산육속과 관련하여서는 산후 건강관리(강문정, 1988)에 관한 연구와 전통문화의 일부로서 산육속(고부자, 1976; 문재희, 1987)에 관해 간략히 언급하고 있는 문헌을 찾아볼 수 있을 뿐, 전통적 출산과 육아관련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의 의식이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제주지역에서는 산육속에 대한 전승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에 제주도의 전통 산육속에 관한 자료 즉, 태교(胎敎), 출산(出産)과정, 산전후(産前後)의 습속, 수유(授乳) 및 이유, 배변훈련 등의 양아와 아기행사, 민간 신앙적 무속처방 등에 대한 독특한 특성을 찾아내고, 이러한 특성들이 오늘날 어떻게 전승되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주인들이 산육문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전통적인 산육속¹⁾을 조사하고, 현재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

1) 산육속은 산속과 육아속을 통칭하는 것으로, 산속은 기자-임신-해산-산후 처리 등 출산을 둘러싼 일련의 주술-종교적, 실제적 행위들을 포괄하는 것이며, 육아속은 아기가 출생한 후 영아기를 걸쳐 유(乳)아기에 이르는 동안의 아이의 양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습속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출생 후 1년이 되는 돌까지를 말한다.

으로 설문지를 통해 제주 전통 사회의 산속(産俗)과 육아속(育兒俗)을 고찰하고 이러한 전통 산육문화의 전승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전통사회의 산육속과 현대 육아문화를 비교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제주도의 전통 산속(태교, 출산과정)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전승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제주도 전통 육아속(양아, 의례, 심리 처방적 습속)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 전승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산육문화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현대적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제주도 전통사회의 특성

제주도의 전통 사회는 역사와 자연환경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이란 요소와 관련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먼저, 제주의 전통 문화는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저항과 생존투쟁의 역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반독립적인 형태로 독자적 지위를 유지해 오던 고대 부족 국가인 탐라가 고려 태조 때부터 중앙정부의 체제 하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근대 이전까지 관원들의 수탈에 핍박을 받았으며, 근대 이후에도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외부에 의한 군사, 정치, 산업적 전락지로 변모하면서 시련의 역사를 지내왔다. 즉, 지배층의 피압과 수탈, 이민족의 침탈로 인한 곤욕과 행고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는 제주도민의 의식과 환경에의 대응양식을 형성해 나가는데 작용하였는데, 이를테면 강인 불굴의 정신과 상호부조 및 신뢰로써 비참한 사회적 현실을 극복해옴으로써 축적되고 체질화된 것이 바로 제주도민의 삼무(三無)정신²⁾(盜無, 乞無, 大門無)이며, 외부의 힘에 대한 저항으로서 제주와 한반도 본토, 또는 ‘중앙정부’와 ‘제주’ 라는 분리주의적 의식이 발전해 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 2000; 박재환, 1977; 신행철, 1998; 이창기, 1999).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은 그 사회의 구성원을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형성 또는 강화되어 제주인의 자녀관 및 양육관으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인 것으로, 전통 산육숙을 이해하는 데에는 이러한 고난과 역경의 역사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 전통사회는 삼다(三多)와 삼보(三寶)³⁾적 환경에의 적응이란 기반 위에 놓여있다. 제주도는 화산지형으로 하천은 거의 건천이며, 토양은

2) 제주에는 도둑이 없고(盜無), 걸인이 없고(乞無), 대문이 없다는(大門無) 뜻이다.

3) 삼다라 함은 바람, 돌, 여자가 많다는 것이며, 삼보라 함은 해산물과 자생식물, 언어가 풍부하다는 것을 뜻한다.

화산회토로 척박했던 한편, 해산자원과 식물종이 풍부하였으며, 지리학적으로는 자생적인 생활문화에 본토와의 정치적 교류를 통해서 북방문화를 그리고 해류를 통해 남방문화의 유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제주인들은 풍부한 각종 해산물과 식물종을 이용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편,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독립의식, 근검절약의 정신을 강화시켜, 즈낭정신⁴⁾과 분가주의⁵⁾, 균분상속, 제사분할 등의 의식과 가족제도 등을 통해 제주의 각박한 풍토적 조건에 대한 극복에의 의지를 표출하였다. 이러한 제주의 전통사회는 척박하면서도 풍요로운 환경 여건에서 형성된 특유의 토착문화와 외부에서 들어온 문화가 상호융합하면서 제주도는 한반도 본토와는 다른 특수문화권으로서의 독자성을 띠게 된 것이다(김항원, 1997; 박재환, 1977; 송성대, 2001; 이창기, 1999; 제주도교육청, 1996).

이러한 자연 환경적 특성은 출산 전후 임산부들을 위한 음식, 행위 등의 권장 및 금기 사항이나 육아과정에서의 사용되었던 육아용품 및 먹거리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제주의 전통 산육속을 해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전통사회는 열악한 환경적 조건을 극복해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노동이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던 사회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열심히 일하는 빈부의 차가 많지 않은, 노동을 기반으로 남녀의 평등, 재산의 평등이 형성된 사회였다(김항원, 1998; 김혜숙, 1998, 1999; 송성대, 2001). 제주 전통사회의 이러한 특성은 제주 여성들에 관한 연구들(윤치부, 2000; 정순덕, 2000; 조혜정, 1982)에도 나타나 있듯이, 여성 활동의 근본인 평등주의가 제주사회의 일상적 인간관계의 지배적 원칙으로 작용하는 기반이 되었다. 여성의 가치관은 능력 위주로 자주성과 실제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가치관은 육아를 대부분 전담했던 부녀자들의 출산과 육아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쌀을 저장하는 고방(庫房)에서 식량을 조금씩 덜어 비축해 두는 것으로서,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한줌씩 덜어 작은 단지에 두는 것으로서, 호남지방의 '좁도리(절약) 정신'과 유사하다.

5) 제주의 전통사회에서는 집의 구조를 안거리, 밖거리로 배치하여 장자라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분가하여 독립생계를 꾸미도록 하였다.

2. 문화와 산육속

문화는 그 본질에서 볼 때, 보수적인 본성이 있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이동에 따라 변한다(이광규, 1974).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현상의 성격도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과 변천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의미는 사회학이나 문화 인류학적 차원에서 문화를 동적인 변화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 사회의 문화 현상의 특성도 사회 변동 내지 문화 변동에 따라 변화되어지기도 하고, 소멸되어지기도 하고, 지속되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 내지 메커니즘으로 자생적인 내적인 요인과 타율적인 외적요인으로 대별된다(박미란, 1988).

따라서 전통은 같은 문화유산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생활에서 볼 때 어떤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초로 하여 파악된 것을 말하며 반드시 연속성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전적으로 망각되었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 전통으로 되살아나는 일은 흔히 보는 일이며, 전통의 경우 인간에 의해 그 문화적 기능이 고려되지 않으면 전승이 불가능하다.

한 사회의 아이를 낳고 기르는 방식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사회화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화의 형성자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도의 전통문화로서의 산육속은 제주의 역사와 자연환경 그리고 그러한 역사와 공간에서 삶을 영위해온 사람들이란 요소와 관련하여 그 특징과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문화적 행위로서 산육속은 일정한 목적을 갖고 행해지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갖고 있다. 이때 전략은 주술-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 전략을 포괄하고 있다(한양명, 1999).

전통사회(오선영, 2001)에서는 출산을 소중하고 신비한 것으로 여겨, 부정을 탈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출산의 고통을 가족과 함께 나누는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아기가 무병장수 하도록 덕담을 해주며 길흉사를 함께 나누는 좋은 민족성을 볼 수 있으며 생명의 소중함과 모든 면에서 자녀 교육을 우선으로 하는 생활 방식으로 생활 속에는 관례와 더불어 동족 응집력 및 소속감

을 강화시켜, 길흉사를 가리지 않고 협동의 정신을 갖게 하였다.

3. 제주도 전통 산속

환경 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을 강조하여 임부의 몸가짐, 마음가짐이 태아에게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전통사회의 태교는 그의 실천을 통해 건강하고 자질이 뛰어난 아기를 낳기 위한 태교로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임부 및 그 가족들은 임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이에 삼가고 조심하는 금기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고 보아진다. 출산과정 또한 문화적 산물로서 산모의 총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문화권내에서의 독특한 신념을 형성하게 되며, 문화적 배경에 따라 건강행동은 다르게 나타내게 된다. 일정한 문화권 즉,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들의 건강가치, 건강신념, 건강행위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다(강문정, 1988). 이러한 출산과 관련된 습속에는 산실의 안정과 출산을 도와주는 조력자 및 태출과 태반의 처리, 산후 산모의 음식섭취와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문헌을 통해서 살펴본 임부 및 그 남편의 태교의 금기 사항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임신 전후의 심신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교는 어머니 뱃속에서 받는 교육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가 지켜나가는 몸가짐을 말하며 이 때의 산모의 행동은 아이나 태어난 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태서 발생된 것이다(이경복, 1979).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인격체로서의 태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심신이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위해 태교를 중요시 여겼다. 전통 태교에는 훌륭한 아기를 낳기 위해 지켜야 할 제약이 많았고, 이러한 내용은 「태중훈문(胎中訓文)」, 「동의보감(東醫寶鑑)」, 「계녀서(戒女書)」, 「사소절(士小節)」, 「규합총서(閨閣叢書)」, 「태교신기(胎教新記)」, 「해월신사법설(海月神師法說)」 등의 문헌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옛 문헌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는 구전되어 오는 태교 실천의 내용도 많았는데, 주로 수태전후의 섭취음식과 태도, 언행 등

에 대한 권장 및 금기사항들로 이루어져 있다(하수연, 1999).

제주도의 경우, 태교실천에 있어서 태교를 중시하던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는데, 이들이 제시한 임신부들의 태도나 언사, 행동, 섭취 음식 등의 권장 및 금기사항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강문정, 1988; 고부자, 1976; 문재희, 1986; 제주도, 1933; 제주도교육청, 1996).

둘째, 출산과정은 문화적 산물로서 산모의 총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 문화권내에서의 독특한 신념을 형성하고 나아가 건강신념을 갖게 되며, 문화적 배경에 따라 건강행동을 다르게 나타내게 된다. 일정한 문화권 즉, 사람들의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들의 건강가치, 건강신념, 건강행위의 중요한 결정인자이다(강문정, 1988). 이러한 출산과 관련된 습속에는 산실의 안정과 출산을 도와주는 조력자 및 태줄과 태반의 처리, 산후 산모의 음식섭취와 부정을 막기 위한 방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예전에 첫애의 분만은 흔히 친정집에서 이루어졌다. 친정 어머니와 식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산모로서는 편할 뿐만 아니라 시집보다는 심리적 안정을 지닐 수 있어 이롭기 때문이었다. 집에서 분만할 경우라면 대체로 구들이나 대청마루에서 분만을 했으며, 드문 일이지는 하지만 제주 여인들은 워낙 부지런하기 때문에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거나 바다에서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길가나 축항에서 분만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재희, 1986; 제주도, 1993). 길가에서 분만하면 <길둥이>나 <질둥이>, 축항에서 분만하면 <축항둥이>란 별명을 붙이곤 했다.

한국전통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태를 가르다. 태는 보통 3일째 되는 날 물거나 태우거나 물에 띄어버리는 방법으로 처리한다(오선영, 2001; 한양명, 1999). 제주도인 경우, 산모의 모체에서 태아가 떨어지면 태줄을 자르는데 이를 “배똥 줄 자른다.”고 하며 이 태줄을 “명줄”이라고도 한다(고부자, 1976). 태줄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 세 가지인 바 이를 집과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처리할 경우엔 자녀들 터울이 늦어진다는 속언(俗言)도 전한다(제주도, 1993). 산후(産後) 3일째 되는 날 알맞은 그릇에 넣어 딱 맞은 뚜껑을 닫고 남 몰래 바다에 가서 던진다. 꼭 맞는 뚜껑으로 잘 닫고 던져야지 만약 틈이

생겨서 개미에게 땃줄을 물어 뜯기게 되면 그 애가 부스럼이 난다는 속언(俗言)이 전해진다. 또한 세 갈래길 한 가운데 장작으로 땃줄을 불태우거나 태우고 남은 나머지는 태독 약으로 효험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문혀 둔 땃줄을 3년 후에 꺼내고 간질병이나 폐병환자가 복용하면 탁효가 있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는 초삼일이 되면서부터 산모의 수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우족이나 붕어 등을 고아 먹으며 삼신 등에게 축원하고 산모의 신체에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과 행위금기를 지킨다. 이 금기에는 경험에 의거한 실제적 국면과 주술-종교적 국면이 포괄되어 있다(한양명, 1999). 한편 제주도인 경우, 집안에서 분만하는 관행일 때 분만중인 산모에게 참기름에 달걀을 타서 먹이곤 한다. 그리고 분만 직후에는 메밀가루를 친 미역국을 먹이는 게 일반적이다(강문정, 1988; 고부자, 1976; 제주도, 1993).

예전에는 분만하여 3일째 되는 날 산모와 산아(産兒)를 목욕시키는 게 관례였다. 쭉을 삶은 물을 목욕물로 쓴다. 엘레빗도 쭉물로 깨끗이 닦고 흐트러진 머리를 비로소 빗는다. 또한 쭉물 목욕을 하는 대신에 하루쭉 쭉을 깔아 앉는 경우도 있다. 분만 일이 가까워 오면 그 집안에서는 쭉을 필요한 만큼 마련해서 깨끗하게 말려 두었다가 쓰곤 한다. 이때 깔아 놓았던 보릿짚 따위도 말끔히 걷어치운다(강문정, 1988; 제주도, 1993).

4. 제주도 전통 육아속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수유를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엄격한 수유방식은 여러 문헌기록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구전자료에서도 발견되면서 수유시 주의사항이 많았다(유안진, 1990). 이와는 달리 제주도 부녀자의 수유태도는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았으며 수유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개 노동에 얽매이고 있는 생활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국 전통사회에서의 수유방법이 거의 모유인 것과 같이 제주도에서의 수유방법도 대부분 모유였으며, 수유는 수시로 이루어졌고,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다섯 살이 될 때까지도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이유

방법에는 어머니의 젓꼭지에 무엇인가를 부착시키는 방법과 또는 아이의 수치를 자극해서 이유 시키는 방법 등이 있었고, 그 외 밭에 나갔을 때에는 풀잎을 이용해서 이유 시키거나, 수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아이에게 “지금까지 젓을 먹는 것을 보니 송아지 새끼구나”라고 놀려 수치를 자극하여 젓을 떼었다(문재희, 1987). 유안진(1990)에 의하면 전통사회에서는 또 하나의 이유방법으로 조모의 빈 젓 빨기로 별 탈 없이 자연스럽게 이유에 적응할 수 있다고 하나 제주도에서는 빈 젓을 빨면 거짓말 잘 한다하여 기피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허튼 소리를 잘 하면 “빈 젓 빨고 자란 놈”이라고 놀려 조모의 빈 젓 빨기는 이유방법으로는 거의 허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질적인 이유로는 조모가 대리모로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고, 또 노동으로 인한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유식의 경우, 제주도에는 별도로 정해진 특정의 음식은 없었다. 워낙 먹을 것이 귀했고, 생활이 궁핍했기 때문에 주로 성인의 음식에서 자극성만 없게 하여 먹이는 정도였다. 대개 보리밥을 국에 말아 먹이거나 좁쌀죽을 먹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재희, 1987).

제주에는 유다른 요람인 애기구덕이 있다. 애기구덕이라고도 하는 이 요람은 아기를 재우거나 놀려주기 위하여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장방형의 바구니이다.

애기구덕 안쪽 반쯤의 높이로 새끼줄로 엮어서 보릿짚 따위를 깔고 그 위에 아기를 눕혀서 좌우로 흔들면서 아기를 재운다. 아기가 잠에서 깬 다음에도 이 애기구덕에 그냥 눕힌 채 애기구덕 흥그는 소리 곧 자장가를 부르며 흔들어 주면 보채지 않고,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부르는 자장가 소리는 아직도 자연적 조건에서 들을 수 있다. 사회변천과 더불어 술한 일노래가 노동현장에서 벌써 사라져서 인위적 조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실정과는 대비되는 셈이다(제주도, 1993). 이러한 애기구덕은 그 형태나 조작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아기를 돌볼 수 있게끔 도와준 매개체로서 제주도의 전통사회 육아에 있어 실상 대리모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유안진(1990)에 의하면, 배변훈련 시기에 있어서 전통사회에서는 특정한 시

기가 없었고 때가 되면 가린다는 느긋한 태도였다. 제주에서도 대소변 훈련 시기는 특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고 대개가 유아가 말을 시작해서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세, 네 살부터 배변훈련시기에 들어갔다.

제주도의 배변훈련 담당자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육아의 주 담당자가 어머니였던 만큼 어머니가 맡았다. 배변훈련 시기가 늦은 것 또한 훈련의 담당자인 어머니의 칭찬과 격려의 관용적인 태도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동으로 인해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 세심한 신경을 쓰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인 경우 대소변 용기는 <좁박>이라 하여 나무로 만든 바가지 형태의 변기가 사용되었는데, 물애기 때에는 좁박에다 재를 담아 아기구덕 속에 넣은 뒤 그 위에 보릿짚을 깔고 다시 담요를 덮어 그 위에 아기를 눕혔고, 조금 더 커서는 대소변 용기로 보릿짚과 좁박이 이용되었다(문재희, 1986; 제주도, 1993).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삼칠, 백일, 돌이라는 아기행사가 있었다. 이러한 아기행사는 아기의 성장발달의 시점과 당시 사회의 사고체계나 신앙체계에 의하여 발생되었으며, 동시에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 아기행사 때마다 아기의 감각발달, 특히 미각과 청각발달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유안진, 1990). 또한 산가의 입장에서 의례는 부정으로부터 아이와 산모를 분리시키고, 산모를 공동체로 재통합시키며, 아이를 가족과 친족공동체, 그리고 지연공동체에 통합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한양명, 1999).

제주도인 경우에는 아기행사로 <치셋메>, <사흘메>, <일뤼메>, 백일, 돌이 있었는데, 치셋메는 출산케 해 준 삼승할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차리는 상을 이야기하고, 사흘메는 분만 후 사흘째 그리고 초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뤼메가 있었다(문재희, 1987; 제주도, 1993). 이들은 모두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행사의 내용과 의미는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아기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삼일행사를 살펴보면, 아기가 탄생한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인생의 첫 행사는 시작된다. 이날 아침 일찍 산모가 썩물로 몸을 씻고 아기는 따스한 물로써 때를 씻긴다. 이 목욕을 일찍 빠르게 할수록 아기의 발육이 잘 된다고

하며 사흘째 되는 날부터 매일 아기를 씻기는데 첫날은 위에서 아래로 다음 날은 아래서 위로 씻기면 아기의 발육이 평균 하다고 한다.

아기의 머리맡에는 삼신할머니를 섬기는 쌀밥과 미역국이 놓여있는데 이것은 삼신이 발육의 기능까지 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후 3일은 산모에게 있어서는 회복기이며 영아도 바깥세계에 적응되는 시기이므로 인생의 첫출발의 시기로 적당하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칠일행사를 살펴보면, 생후 칠일 째를 첫이래, 초이레라고 하며 이날은 아침 일찍 산모가 아기를 씻기고 깃 없는 배내옷으로 갈아입히고 아기의 한쪽 옷소매를 풀어주고 방안을 정돈하고 산모도 몸 손질을 한 다음에 가장을 비롯한 가족과 대면할 준비를 했다. 이날 새벽에는 흰쌀밥과 미역국을 장만하여 삼신상을 차려 아기의 무병장수와 남동생보기 그리고 산모의 조속한 회복을 빌었다. 이날은 아기와 첫 대면하는 가정 내의 간단한 잔칫날이므로 가족끼리 쌀밥과 미역국을 나누어 먹었다.

지난날 제주에서는 아기의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흔히 생략하였다. 그 까닭은 제주도민의 삶이 척박한 실정에서 연유한 줄 아는데 설령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치르더라도 가족들이 음식이나 유달리 차려 먹는 정도로 그쳤다. 게다가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치르면 오히려 좋지 않다는 역설적인 풀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삶의 실정이 궁핍함을 합리화하려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백일잔치나 돌잔치를 야단스럽게 치르고 난 다음에 만약 그 애를 여의거나 할 경우 얼마나 서운하겠느냐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다. 예전에는 병원의 혜택을 못 받아서 애를 애답게도 어렸을 때 여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이었다. 백일잔치를 치를 때에는 시루떡을 찌서 거리에 나가고 지나가는 사람 모두에게 나눠주되 백 사람이상 나눠 먹어야만 애가 잘 자란다는 속언(俗言)이 있다. 태어난 애기의 사회적 공인을 얻으려는 관습이라고 풀이되는바, 통과례는 개개인의 의례이면서도 이런 점에서는 사회 의례화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지만 돌잔치를 차릴 경우 애가 차려 놓은 상(庠)에서 무엇을 처음 집느냐에 따라서 그 애의 장래를 점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돈을 먼저 집으면 부자로 산다든가 붓을 먼저 집으면 학자나 문필가가 된다
든가 하면서 점쳐 보고 모인 사람들이 흥미롭게 보면서 한바탕 터뜨리며 즐
긴다(제주도, 1993).

돌은 출생 후 1년이 되어 맞은 첫 생일로 전통사회에서는 아기에게 돌 옷
을 입히고 돌상을 차려 돌 잡기를 하게 하였다. 성별에 따라 다르게 특별히
마련한 돌 옷을 지어 입혔고, 아침 일찍 쌀밥 3그릇과 미역국 3그릇으로 마지
막 삼신상을 차려 빌었다. 또 첫돌을 맞이한 아기를 위해 돌상을 차렸는데 아
기가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벽사(辟邪)용이며 돌 잡히는 놀이를 위한 떡과
과일류의 음식상인데 여기에는 아기의 수명, 인격,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도록 만들어졌다. 돌상에는 이외에도 책, 활, 종이, 떡, 국수, 실, 돈, 대추,
밤, 호두, 쌀, 자(尺), 칼, 가위, 바늘을 놓기도 하는데 자, 가위, 바늘은 여아의
돌상에 활 대신에 놓았다. 그리고 무명 한 필을 깔아서 아기를 앉혔다. 이렇
게 상을 차려놓고 돌상 앞에 아기를 앉혀놓은 뒤 가족, 친척과 친지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이가 마음대로 집은 것으로 그 아기의 장래를 점치는 것을 돌
잡히기를 실시하였다. 돌잔치 후에 돌잔치에 온 사람과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
에게 떡과 음식을 돌렸는데 이때 답례로 돈이나 쌀 또는 실 등 물품에 돌떡
그릇에 담아 보내 아기의 장래를 축복해 주었다. 이러한 습속은 태아를 위한
태교에서부터 시작되어 태어나서부터 첫돌까지의 아기의 무사한 성장을 기원
하는 염원에서 비롯된 산육속이라 하겠다.

제주도에서도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년이 되는 날에 돌잔치를 하였는데, 돌
잔치에는 백일 때와 같이 삼신상을 차려 빌어주는데 상위에는 붓, 책, 돈, 실,
벼루, 가위, 밥, 흙, 자귀 등 “돌잡이”를 올려놓아서 아기가 잡는 것에 따라
아기의 장래를 점쳐보기도 한다. 돌상 위에 올리는 돌잡이의 종류는 육지지방
과 거의 유사하다고 전해오고 있다(제주도교육청, 1996).

전통사회에서는 의학기술의 미 발달로 영아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백일이
나 첫돌을 넘으면 성장으로의 중요한 단계에 들어서는 것으로 인식되어 삼칠,
백일, 돌등의 행사는 인생에 있어서의 한 계단씩 성장해 가는 소중한 하나의
통과의례로 보았다(오선영, 2001). 제주도에도 역시 아기행사로 삼일행사, 칠

일행사, 백일과 돌이 있었으나, 생활이 궁핍함으로 인해 그러한 행사는 살림이 조금 더 풍족하거나 아기를 귀하게 여기는 집안에서만 일부 행해졌을 뿐이다(문재희, 1987; 제주도, 1993). 특히, 분만 후 차려 놓는 이른바 치셋메는 분만케 해 준 삼승할망에 대한 감사의 사흘째의 사흘메, 이레째의 일뤼메는 탈없는 양육을 기원하는 뜻으로, 전통사회의 삼신 빌기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리 처방적 습속의 하나인 침 맞히기는 전통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제주도의 고유한 혹은 특유의 육아습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의 침 맞히기는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진 풍속으로서, 아프거나, 보챤 때, 신경이 예민할 때 등 아이의 심신이 불편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마을의 침바치⁶⁾가 아이에게 침을 놓는 경우가 흔하였다(이경화, 2003).

양아의 한 습속인 제주의 침 맞히기는 기존의 문헌이나 조사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으며, 여전히 현대 제주 사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아직 그 가치 또는 과학적 혹은 비과학적 특성 등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향후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산후의 혜택을 별로 받을 수 없었던 제주의 전통사회에서는 태어나서 열다섯 살 정도까지는 그 아이의 건강을 상징적 존재로서의 삼승 할망이 관장한다는 관념이 강하였다. 분만 전후와 신생아 관리, 양육과정에서 다분히 민간 주술적인 요소가 나타났는데, 민간 주술은 민속의학의 일부분으로 샤머니즘적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다. 제주도의 산육 과정에 관여했던 주술(呪術)적 처방, 즉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적인 힘을 빌려 재난을 피하려는 습속은 크게 두 가지로서, 순조롭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과 아이의 질병을 고치는데 쓰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경화, 2003). 이러한 주술적 습속은 제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유사한 습속을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오선영, 2001; 이경복, 1979; 한양명, 1999).

6) 마을에 대대로 침을 놓아주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어서 아이들에게 침을 놓아주었는데, 삼승할망이나 심방과는 다른 존재로, 정식 의료인은 아니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도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통해 전통적인 산육속을 조사하고, 현재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전통 산육속의 전승 실태와 그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

노인면접의 표집 대상은 해방 이전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영유아기를 보냈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여자 노인 134명으로, 이들의 평균 자녀수는 4.5명(남아 2.2명, 여아 2.3명)이다. 2개시와 2개 군의 동·읍 단위로 면접대상자를 무선 표집하여 개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노인면접 대상자 현황은 <표Ⅲ-1>과 같다.

부모설문조사 대상은 제주도 4개 지역별로 250명의 유치원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여 187매를 회수하였다. 그 중 실제 분석 대상으로 취급된 표집수는 168명이며, 조사대상 현황은 <표Ⅲ-2>와 같다.

<표Ⅲ-1> 노인면접 대상자 현황

구 분		사례수	백분율
현거주지	제주시	38	28.4
	서귀포시	55	41.0
	북제주군	17	12.7
	남제주군	24	17.9
혼인전 주거주지	제주시	18	13.4
	서귀포시	34	25.4
	북제주군	44	32.8
	남제주군	38	28.4
연 령	만 60-65세	62	46.3
	만 66-70세	31	23.1
	만 71-75세	26	19.4
	만 76세 이상	15	11.2
학 력	무학	50	37.3
	초등학교 중퇴 및 졸업	60	44.8
	중학교 중퇴 및 졸업	16	12.0
	고등학교 중퇴 및 졸업	5	3.7
	전문대 중퇴 이상	3	2.2
전체		134	100.0

<표Ⅲ-2> 부모설문 대상자 현황

	구 분	사 례 수	백 분 율
현 거주지	제주시	28	16.7
	서귀포시	76	45.2
	북제주군	47	28.0
	남제주군	17	10.1
혼인전 거주지	제주시	40	23.8
	서귀포시	39	23.2
	북제주군	31	18.5
	남제주군	32	19.0
	기타	24	14.3
	무응답	2	1.2
연 령	27 - 30	8	4.8
	31 - 35	49	29.2
	36 - 40	39	23.2
	41 - 43	48	28.6
	무응답	24	14.2
학 력	초등졸	3	1.8
	중졸	3	1.8
	고졸	98	58.3
	전문대졸	40	23.8
	4년대졸	21	12.5
	대학원졸	2	1.2
	기타	1	0.6
전 체		168	100.0

2. 연구도구 및 절차

본 연구의 노인 면접지는 이경화(2003)의 면접지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면접지다. 면접 시기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지속되었으며, 면접자는 도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14명(평균 연령 35.92세, 평균 교직경력 13.78년)으로, 면접에 앞서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 및 취지, 면접내용과 면접 및 기록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부모설문지는 노인 면접지에서 사용한 면접지를 연구 의도에 맞게 내용을 추출하여 2003년 3월 24일에서 4월 12일까지 제주도내 병설유치원 학부모 250명에게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전승실태 조사’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187부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부실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168부

만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크게 산속, 육아속, 인식으로 나뉘어 지며 그 세부적인 설문지의 구성은 <표Ⅲ-3>과 같다.

<표Ⅲ-3> 설문지 구성

영역	내용	세부내용	문항수
산속	태교	태교의 필요성 및 실천 유무 권장했던 사항(음식, 언행, 태도, 마음가짐) 금기했던 사항(음식, 언행, 태도, 마음가짐)	6
	출산	출산방법(자세, 장소, 조력자) 출산 후 먹은 음식 태반, 탯줄, 배꼽의 처리방법	5
육아속	양아	수유 및 이유 목욕 아기구덕 대소변 가리기	12
	의례	칠, 백일, 돌	10
	심리 처방적 습속	눈 다래끼 돌림병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이를 뽑을 때 열병(홍역) 침 맞히기	8
전통 및 현대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육아습관의 유사성 전통 부모님의 육아관	3
전 체			44

3. 자료분석

노인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산육속 자료는 제주의 전통 산속, 육아속, 육아문화 3개영역과 태교실천, 출산, 양아, 의례, 심리 처방적 관습, 육아방식의 6개 분석 틀을 설정하여 빈도 및 백분율의 기초통계와 분석 틀에 따라 내용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틀은 <표Ⅲ-4>와 같다.

부모설문지의 자료처리는 설문지를 통해 회수된 자료들은 Spss Windows 용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응답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표Ⅲ-4> 면접자료 내용분석

영역	내용	세부 내용
산속	· 태교실천	· 태교의 필요성 및 실천 유무 · 임신모의 권장사항 · 임신모의 금기사항
	· 출산	· 출산방법(자세, 장소, 조력자) · 출산후 산모관리(젖줄 및 태반처리, 먹은 음식)
육아속	· 양아	· 수유 및 이유 · 대소변훈련 · 아기구덕 · 목욕
	· 의례	· 삼일행사 · 칠일행사 · 백일 · 돌
	· 심리 처방적 관습	· 침 맞히기 · 질병치료 주술
전통 및 현대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 육아방식의 장점 및 단점 · 육아습관의 유사점과 차이점

IV. 연구결과

1. 전통 산속의 전승실태

제주도의 전통 산속(태교, 출산)에 대한 전승실태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태교실천

태교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노인면접결과 23명(85.2%)이 태교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부모설문 조사결과에서도 163명(97.0%)으로 대부분이 태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태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면접결과 태교실천은 11명(19.3%)에 불과했지만, 부모설문 조사결과에서 태교실천 유무에 관한 질문에는 100명(59.5%)이 태교를 실천했다고 응답하였다.

태교의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노인면접결과는 27명(93.1%)이 착하고 편안한 마음 갖기가 높게 나타났고, 부모설문 조사결과에서도 착하고 편안한 마음 갖기가 135명(57.2%)으로 응답을 했다. 이외에도 기도를 했다는 부모도 있었고, 건강하게만 낳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한 부모들도 있었다. 그리고 임신 전후의 관리에 대해 조사한 노인면접과 부모설문 조사한 다중응답결과는 <표 IV-5>, <표IV-6>과 같다.

<표IV-5> 태교의 권장 언행

구 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전 통	건강한 아이 사진보기	1	6.7
	고운 것만 보기	4	26.6
	좋은 말 자주 쓰기	3	20.0
	기도, 노래 들려주기	2	13.3
	보름이나 초하루에 할망당 가기	1	6.7
	바른 행동하기	2	13.3
	깨끗한 곳에서 소변보기	1	6.7
	남을 도와주기	1	6.7
	합 계	15	100.0
현 대	건강한 아이 사진 보기	53	13.6
	고운 것, 좋은 말, 바른 행동하기	136	34.9
	기도, 노래 들려주기	97	24.8
	보름이나 초하루에 할망당 가기	4	1.0
	깨끗한 곳에서 소변보기	35	9.0
	남을 도와주기	65	16.7
	합 계	390	100.0

<표IV-5>에 의하면 태교의 권장언행으로는 노인면접결과 고운 것만 보기가 4명(26.6%), 좋은 말 자주 쓰기가 3명(20%)으로 나타났고, 부모설문 조사 결과에서도 고운 것, 좋은 말, 바른 행동하기가 136명(34.9%)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는 기도, 노래 들려주기(97명, 24.8%), 건강한 아이 사진 보기(13.6%, 53명), 남을 도와주기(65명, 16.7%), 깨끗한 곳에서 소변보기(35명, 9.0%), 보름이나 초하루에 할망당 가기(4명, 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태교가 필요하다는 부분과 태교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착하고 편안한 마음 갖기의 내용은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교의 권장언행 중에서 고운 것 만 보기의 내용은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초하루나 보름에 할망당 가기는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IV-6> 태교의 금지 언행

구분	내용	사례수	백분율
전 통	불난 곳 가지 않기	11	10.1
	장애인 가까이서 보지 않기	1	0.9
	나쁜 이야기하지 않기	11	10.1
	긋은 일 보지 않기	22	20.2
	나쁜 사람, 물건 보지 않기	3	2.8
	소, 조랑말 조심(말 줄 밟지 않기)	5	4.6
	놀라는 일 없게 하기	1	0.9
	아무테나 앓지 말기	6	5.5
	신랑, 신부 처음으로 보지 말기	1	0.9
	급히 물려도 빨리 나가지 말기	4	3.7
	물건을 품속에 숨겨 다니지 말기	1	0.9
	구석으로 가지 않기	1	0.9
	문턱 넘지 마라	2	1.8
	빗자루 깔고 앓지 마라	1	0.9
	남에게 피해주는 일 하지 않기	5	4.6
	술, 담배 금지, 밤에 외출금지	4	3.7
	무서운 곳 피하기	3	2.8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9	8.3
	도둑질하지 않기	8	7.3
	더러운 곳 앓지 않기, 무거운 것 들지 않기	3	2.7
	몸을 차갑게 하지 않기	1	0.9
싸우지 않기, 약 먹이지 않기	5	4.6	
살생을 금하라	1	0.9	
합 계		109	100.0
현 대	불난 곳 가지 않기, 무서운 곳 피하기	90	8.6
	장애인 가까이서 보지 않기	21	2.1
	나쁜 이야기하지 않기, 남에게 피해주는 일 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	133	12.8
	긋은 일 보지 않기, 나쁜 사람, 물건 보지 않기	103	9.9
	소, 조랑말 조심(말 줄 밟지 않기)	12	1.2
	놀라는 일 없게 하기	121	11.6
	아무테나 앓지 말기, 구석에 앓지 말기, 빗자루 깔고 앓지 마라	68	6.5
	신랑, 신부 처음으로 보지 말기	1	0.1
	급히 물려도 빨리 나가지 말기	14	1.3
	물건을 품속에 숨겨 다니지 말기, 도둑질하지 않기, 살생을 금하라	71	6.8
	구석으로 가지 않기, 문턱을 넘지 마라	46	4.4
	몸을 차갑게 하지 않기, 약 먹이지 않기	125	12.0
	술, 담배금지, 밤에 외출금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122	11.7
	더러운 곳 앓지 않기, 무거운 것 들지 않기	106	10.1
	기타	9	0.9
	합 계		1042

<표IV-6>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 긋은 일 보지 않기가 22명(2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나쁜 이야기하지 않기, 남에게 피해주는 일 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가 133명(12.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금기했던 음식으로는 자극적인 음식은 섭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태교의 금지 언행들 중에서 특히 불난 곳 가지 않기, 나쁜 이야기하지 않기, 굶은 일 보지 않기의 내용들은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출산과정

출산장소에 있어서 노인면접결과에서는 대다수(60명, 93.8%)가 밭에서 일하다가 진통이 심하면 집으로 돌아와 방안에 보릿짚이나 벼짚을 깔고 그 위에서 힘을 쓰며 낳았다고 한 반면에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대다수(163명, 97.0%)가 병원에서 낳았다고 하였으며, 이외에(2명, 1.2%)는 제왕절개를 하기 위해 병원에서 출산했다고 하였다.

출산자세에 있어서는 노인면접 결과 앉아서(61명, 45.5%) 또는 구덕을 안고 엎대어서(31명, 23.1%) 아이를 낳았다는 반응이 전체 68.7%를 차지함으로써, 누워서 낳았다고 반응한 피면접자들(42명, 31.4%)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설문 조사결과에서는 병원에서 출산을 대부분 하다보니 (125명, 79.6%) 누운 자세로 아이를 낳았다는 반응이 앉은 자세(4명, 2.4%)나 엎어져서 낳았다(2명, 1.3%)는 반응보다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시 태아의 진행경로와 중력의 방향에 따른 분만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제주도 전통사회의 출산자세는 일찍이 과학성을 추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출산시 도움을 준 사람으로서는 노인면접결과 친정어머니(16명, 23.9%), 산파(15명, 22.4%)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부모설문 조사결과에 있어서도 출산 시 도움을 준 사람에서는 35.6%에 해당하는 73명이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나머지는 남편(44명, 21.5%), 시어머니(37명, 18.0%), 산파(5명, 2.4%), 외할머니(2명, 1.0%), 친척(2명, 1.0%), 동네사람(1명, 0.5%) 순으로 도움을 받

았다고 하였다. 또한 이 외에는(41명, 20.0%) 의사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렇게 한반도 본토의 출산과는 달리 조력자의 힘을 빌어 출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제주 여성의 강인함과 독립적 의지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산 후의 먹은 음식에 대한 노인면접과 부모설문 조사한 다중응답결과는 <표IV-7>과 같다.

<표IV-7> 출산 후 먹은 음식

구 분	내 용	사 례 수	백 분 율
전 통	메밀수제비	41	50.6
	미역국	30	37.0
	한약	1	1.2
	죽	2	2.5
	돼지족	2	2.5
	밥	3	3.8
	된장국	1	1.2
	막걸리를 데워서 돼지기름에 타서 먹음	1	1.2
	합 계	81	100.0
현 대	메밀수제비	112	22.9
	미역국	154	31.4
	한약	92	18.8
	죽	25	5.1
	돼지 족	30	6.1
	밥	55	11.2
	된장국	17	3.5
	막걸리 데워서 돼지기름에 타서 먹음	2	0.4
	기타	3	0.6
합 계	490	100.0	

<표IV-7>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 산후에 특별히 따로 먹은 것이 없다고 응답한 53명을 제외하고는 메밀수제비(41명, 50.6%), 미역국(30명, 37.0%), 돼지족(2명, 2.5%), 돼지기름을 탄 막걸리(1명, 1.2%)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출산 후 먹은 음식으로는 미역국(154명, 31.4%), 메밀수제비(112명, 22.9%), 한약복용(92명, 18.8%), 밥(55명, 11.2%), 돼지족(30명, 6.1%), 된장국(17명, 3.5%), 막걸리를 데워서 돼지기름에 타서 먹음(2명,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붓기를 없애려고 호박을 먹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지금까지 산후 음식으로 메밀수제비를 먹었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메밀수제비가 제주도 산모들에게 주요한 산후 조리 음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출산 후 먹은 음식인 메밀수제비, 미역국은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막걸리를 데워서 돼지기름에 타서 먹는 것은 전승이 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 태반, 탯줄 처리방법에 대해 노인면접과 부모설문 조사한 다중응답 결과는 <표IV-8>과 같다.

<표IV-8> 태반, 탯줄 처리방법

구 분	내 용	사 례수	백분율
전 통	바다에 버림	17	16.7
	물음	25	24.5
	태움	29	28.4
	보관	2	2.0
	배꼽은 방에 걸어둠	11	10.7
	배꼽은 종이에 싸서 버림	6	5.9
	배꼽은 주머니에 싸서 보관	8	7.8
	배꼽은 태움	2	2.0
	병원에서 처리	2	2.0
	합 계		105
현 대	태반, 탯줄은 바다에 버림	41	15.9
	태반, 탯줄은 물음	43	16.7
	태반, 탯줄은 태움	13	5.0
	태반, 탯줄은 보관	2	0.8
	배꼽은 방에 걸어 둠	13	5.0
	배꼽은 종이에 싸서 버림	9	3.5
	배꼽은 주머니에 싸서 보관	58	22.5
	배꼽은 태움	4	1.6
	병원에서 처리	74	28.6
	기타	1	0.4
합 계		258	100.0

<표IV-8>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 탯줄 및 태반의 처리 방법을 보면, 불태우거나(29명, 28.4%), 땅속에 묻는 경우(25명, 24.5%)와 바닷물에 던지는 방법(17명, 16.7%)순으로 보고 되었다. 하지만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 태반 및 탯줄처리 방법을 보면 땅속에 묻거나(43명, 16.7%), 바다에 버리는 방법(41

명, 15.9%), 불태우는 방법(13명, 5.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배꼽의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병원에서 처리(74명, 28.7%)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예전에는 배꼽으로 병균이 침입하여 앓게 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탯줄이나 태반 처리를 중요시 해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이 병원에서 출산을 하고 있어서 탯줄과 태반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노인면접에서는 태반이나 탯줄을 땅속에 묻거나 태웠지만,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병원에서 처리한다고 하여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전통 육아속의 전승실태

제주도의 전통 육아속인 양아, 의례, 심리 처방적 관습의 내용을 중심으로 전승실태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아

수유시기를 보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24명(40.7%)이 25개월 정도 수유를 했다고 하였으며, 10살 때까지도 수유를 했다는 반응을 1명(1.7%)보인 반면에,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의 수유기간으로서는 1년(35명, 23.8%)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로는 3개월, 백일, 14개월 정도로 수유를 했다고 하였다. 이는 예전에는 현대와는 달리 생활이 궁핍했기 때문에 수유시기가 길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현대에 와서는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적다보니, 수유하는 기간도 짧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유의 시기도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노인면접결과에서 대부분의 피면접자들(125명, 93.3%)은 동생을 보는 시기 즉, 세 살 혹은 네 살이 되면 이유를 시작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의 이유 시기는 6개월부터(109명, 71.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년 이상(1명, 0.7%)수유한

경우도 볼 수 있다. 또한 기타로는 백일이 될 때 이유를 시작했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었다.

수유자세인 경우, 노인면접결과에서는 39명(76.5%)이 앉아서 수유를 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부모설문 조사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유자세는 대부분이 앉아서(148명, 80.4%)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누워서 수유를 하는 것 보다 앉아서 수유를 해야 안전하게 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수유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표IV-9>와 같다.

<표IV-9> 수유시 주의사항

구 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전 통	깨끗하게 씻음	8	21.1
	젖이 많이 나와 숨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입으로 붙여줌	2	5.3
	조유 조금 버림	5	13.2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조절	1	2.6
	트립시킴	4	10.5
	코가 막히지 않게 조심	10	26.3
	젖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음	2	5.3
	지방이 많은 음식은 금함	1	2.6
	양쪽을 번갈아 가며 먹음	2	5.3
	돼지족발 먹음	1	2.6
	꿀을 많이 먹음	1	2.6
	매운 음식 금지	1	2.6
	합 계		38
현 대	깨끗하게 씻음	109	16.7
	젖이 많이 나와 숨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입으로 붙여줌	10	1.5
	조유는 조금 버림	65	10.0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조절	117	18.0
	트립시킴	99	15.2
	코가 막히지 않게 조심	30	4.6
	젖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음	6	0.9
	지방이 많은 음식은 금함	108	16.6
	양쪽을 번갈아 가며 먹음	46	7.1
	돼지족발 먹음	9	1.4
	꿀을 많이 먹음	46	7.1
	매운 음식 금지	6	0.9
	합 계		651

<표IV-9>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 제주도 부녀자의 수유태도는 그다지 엄격하지는 않았으며 수유에 대한 개념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개 노동에 얽매이고 있는 생활 때문으로, 38명(28.4%) 정도가 수유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수유에 대해 전통사회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엄격했음을 알 수 있다. 노인면접결과에서 얻어진 수유시 주의사항으로는

깨끗하게 젓을 닦아 먹이고,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조절했으며, 꼭 트림을 시키고, 코가 막히지 않게 하였으며, 젓을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양쪽을 번갈아 가며 먹이고, 매운 음식을 피하고 돼지족발이나 굴 등을 많이 먹었다는 등이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의 수유시 주의 사항으로는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조절(117명, 18.0%), 깨끗하게 씻음(109명, 16.7%), 지방이 많은 음식은 금함(108명, 16.6%)이 높게 나타났으며, 돼지족발 먹음(9명, 1.4%), 매운 음식 금지(6명, 0.9%), 젓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음(6명, 0.9%)은 주의사항으로 낮게 나타났다.

목욕시키는 간격에 대한 노인면접과 부모설문 조사한 다중응답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IV-10> 목욕시키는 간격

구 분	내 용	사 례수	백분율
전 통	3일에 한번	12	27.3
	일주일 후 매일	11	25.0
	3일 후	13	29.5
	2일에 1회씩	7	15.9
	자주 못 시킴	1	2.3
	합 계	44	100.0
현 대	3일에 한번	14	10.3
	일주일 후 매일	27	19.8
	3일 후	5	3.7
	2일에 1회	64	47.1
	자주 못 시킴	2	1.5
	기타	24	17.6
	합 계	136	100.0

<표IV-10>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13명(29.5%)가 3일 후에 목욕을 시켰다는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의 아기 목욕시키는 간격으로는 2일에 1회(64명, 47.1%)가 가장 많이 시킨다고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는 일주일 후 매일 시킨다(27명, 19.8%), 3일에 한번(14명, 10.3%), 3일 후(5명, 3.7%), 자주 못 시킴(2명, 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24명, 17.6%)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후 매일 매일 목욕을 시켰다고 하였다.

목욕시키는 방법인 경우, 노인면접결과에서는 41명(62.1%)이 쭉물을 이용하여 목욕을 시켰다고 하였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 아기 목욕시키는 방법으로는 처음 목욕은 따뜻한 물로 한다(89명, 45.9%)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쭉물을 이용(83명, 42.8%), 향을 넣고 끓인 물(15명, 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현대에 와서도 쭉물을 이용하여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은 쭉이 산모나 아기의 몸에 좋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산모나 아기를 목욕시킬 때 쭉을 사용한다는 내용이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목욕시키는 간격에 대해서는 전승이 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목욕시킬 때의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표IV-11>과 같다.

<표IV-11> 목욕시킬 때 주의 사항

구 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전 통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	20	43.4
	배꼽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19	41.3
	머리조심	3	6.5
	물이 입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	1	2.2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	1	2.2
	파상풍 주의	1	2.2
	손 움직이지 않게 조심	1	2.2
	합 계	46	100.0
현 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	156	24.0
	배꼽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106	16.3
	머리조심	94	14.5
	물이 입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	94	14.5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	127	19.5
	파상풍 주의	30	4.6
	손 움직이지 않게 조심	42	6.4
	기타	1	0.2
합 계	650	100.0	

<표IV-11>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20명, 43.4%), 배꼽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19명, 41.3%)가 가장 많은 주의사항으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아기 목욕을 시킬 때의 주의사항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156명, 24.0%), 감기에 걸리지 않게 조심(127명, 19.5%), 배꼽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106명,

16.3%)이 손 움직이지 않게 조심(42명, 6.4%), 과상풍 주의(30명, 4.6%)보다 반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로는 시간제한을 해서 5분을 넘기지 않도록 목욕을 시킨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목욕시킬 때의 주의사항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기구덕의 재료 및 제작방법에 대한 노인 면접과 부모설문에 대해 조사한 다중응답결과는 <표IV-12>와 같다.

<표IV-12> 구덕 재료 및 제작 방법

구 분	내 용	사 례 수	백 분 율
전 통	대나무와 노끈 이용	59	69.4
	아기 구덕에 쪽박을 넣고 쪽박 속에 풀개를 넣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덮음	12	14.1
	여름의 경우 시원한 베를 깔아서 사용	4	4.7
	쇠와 천을 이용 - 쇠구덕	5	5.9
	이불이나 기저귀를 깔아서 씌	5	5.9
	합 계	85	100.0
현 대	대나무와 노끈 이용	11	3.9
	아기 구덕에 쪽박을 넣고 쪽박 속에 풀개를 넣고 그 위에 지푸라기를 덮음	3	1.1
	여름의 경우 시원한 베를 깔아서 사용	100	35.4
	쇠와 천을 이용 - 쇠 구덕	84	29.8
	이불이나 기저귀를 깔아서 사용	72	25.5
	기타	12	4.3
	합 계	282	100.0

<표IV-12>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 살펴보면, 모두 아기구덕을 활용하였으며, 85명(63.4%)의 피면접자는 대나무, 지푸라기, 천(삼베), 쇠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직접 아기구덕을 만들어서 사용했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 84명(29.8%)이 쇠 구덕으로 만든 아기구덕을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여름철에는 시원한 베를 깔아서 사용(100명, 35.4%)했다고 응답하였다.

구덕의 활용방법인 경우, 노인면접결과에서 살펴보면, 구덕활용이 아기를 잠재울 때, 보챌 때, 아기를 눕힐 때, 울 때, 엄마가 일하러 갈 때 등 다양한 용도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의 아기구덕 활용으

로는 잠재울 때(120명, 51.5%)가 가장 높았으며, 일 하러 갈 때(11명, 4.7%)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처럼 아기구덕은 조작방법이 간단하여 누구나 아기를 돌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매개체로서 예전이나 현대에 와서든 육아에 있어 대리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구덕의 활용방법은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만, 구덕의 재료 및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배변훈련에 대한 노인 면접과 부모설문에 대해 조사한 다중응답결과는 <표 IV-13>과 같다.

<표IV-13> 대소변 훈련법

구 분	내 용	사 례 수	백 분 율
전 통	쌀 것인지 자주 물어보고 만져서 확인함	4	6.6
	형제하는 것을 보면서 익히도록 했음	2	3.2
	플라스틱 통 같은 것에다 쉬하도록 연습시킴	4	6.6
	아기를 들어서 쉬라고 습관들임	9	14.8
	밑에 옷을 안 입히고 놔뒀음	5	8.2
	엉덩이 없는 바지를 입히고 훈련시킴	7	11.5
	조금 크면 자주 앉아서 싸게 함	4	6.6
	특별한 것 없이 알아서 했음	10	16.4
	시간마다 소변보기, 대변보기를 말로 타이름	11	18.0
	밤에 자주 깨워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시킴	2	3.2
	못쓰는 종이를 깔아서 배변 훈련시킴	3	4.9
합 계		61	100.0
현 대	쌀 것인지 자주 물어보고 만져서 확인함	73	16.8
	형제 하는 것을 보면서 익히도록 했음	37	8.5
	플라스틱통 같은 것에다 쉬하도록 연습시킴	80	18.4
	아기를 들어서 '쉬'라고 습관을 들임	85	19.5
	밑에 옷을 안 입히고 놔뒀음	24	5.5
	궁둥이 없는 바지를 입히고 싸게 함	7	1.6
	조금 크면 자주 앉아서 싸게 함	29	6.7
	특별한 것 없이 알아서 했음	13	3.0
	시간마다 소변보기, 대변보기를 말로 타이름	64	14.7
	밤에 자주 깨워서 배변을 할 수 있도록 시킴	17	3.9
	못쓰는 종이를 깔아서 배변훈련 시킴	4	0.9
	기타	2	0.5
	합 계		435

<표IV-13>에 의하면 노인 면접결과에는 대소변 훈련 시 특별히 주의했던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51명(38%)으로, '자주 물어보고 만져서 확

인함’, ‘형제 하는 것을 보면서 익히도록 했음’, ‘밑에 옷을 입히지 않거나 엉덩이가 터진 옷을 입혔음’, ‘밤에 자주 깨워서 시킴’ 등으로 반응을 나타내었다. 대소변 용기는 <죤박>이라 하여 나무로 만든 바가지 형태의 변기가 사용되었는데, 물애기 때에는 죤박에다 재를 담아 아기구덕 속에 넣은 뒤 그 위에 보릿짚을 깔고 다시 담요를 덮어 그 위에 아기를 눕혔고, 조금 더 커서는 대소변 용기로 보릿짚과 죤박이 이용되었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의 대소변 훈련법은 아기를 들어서 ‘쉬’라고 습관을 들임(85명, 19.5%), 플라스틱통 같은 것에다 쉬하도록 연습시킴(80명, 18.4%), 쌀 것인지 자주 물어보고 만져서 확인함(73명, 16.8%)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궁둥이 없는 바지를 입히고 싸게 함(7명, 1.6%), 못쓰는 종이를 깔아서 배변훈련 시킴(4명, 0.9%)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 아기용품에서 취급하는 변기통을 사용하면서 대소변 훈련을 시킨 부모도 있었다.

대소변 가리는 시기인 경우, 부모설문조사 결과 1년 6개월 - 2세가 되어 대소변 가리는 경우가 제일 높은 결과(74명, 41.1%)를 보였고, 3살 -4살인 경우에는 낮은 결과(10명, 5.6%)를 보였다.

대소변 훈련자는 노인면접결과에서 어머니로 나타났으며,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소변 훈련자로서는 엄마가(137명, 76.5%)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는 할머니(30명, 16.8%), 기타(12명, 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육아의 주 담당자가 어머니였던 것만큼 대소변 훈련자 또한 어머니가 맡아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대소변 훈련의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대소변훈련을 시킨다는 점은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의례

제주도에는 아기행사로 <치셋메>, <사흘메>, <일뤼메>, 백일, 돌이 있었는데, 치셋메는 출산케 해 준 삼승할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차리는 상을 이야기하고, 사흘메는 분만 후 사흘째 그리고 초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뤼메가

있었다. 이들은 모두 아기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으로, 행사의 내용과 의미는 다른 지역과 다소 차이가 있다. 노인면접결과와 부모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삼일행사

삼일상 차리기 방법에 대한 노인면접결과, 응답자의 77.6%(104명)이 삼신 할망상을 차렸다고 반응을 보였다. 부모설문조사 결과도 3일상 차리기 방법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3.4%(13명)가 삼신 할망상을 차렸다고 하였다. 이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것이며, 할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행하여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삼일행사에 있어서 할망상을 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만, 행사의 방법은 전승이 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칠일행사

제주도에서는 삼일행사를 한 경우 칠일행사는 거의 생략하였는데, 만약 3일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칠일행사를 삼일행사의 형식과 동일하게 치렀다.

노인면접결과에서는 응답자 100%로가 칠일 밥을 해서 먹었다고 한 반면에,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칠일행사 때 11명(84.6%)이 칠일 밥을 해서 먹었다고 하였으며, 2명(15.4%)은 칠일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칠일행사 때 입힌 옷인 경우, 노인면접결과에서 50%가 칠 때는 새 옷을 해서 입혔다고 응답을 했으며,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칠일행사 때 입힌 옷으로는 11명(44.0%)이 일반 옷을 입혔으며, 나머지는 새옷(7명, 28.0%), 삼베 저고리(4명, 16.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삼일행사 때나 칠일행사 때나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칠방법으로는 노인면접결과, 일뒤편이라고 하여 삼신 할망상을 차리고

(21명, 15.7%), 억새풀 가지를 밥 위에 꽂거나, 어머니 옷을 깔고 그 위에 상을 차렸다고 보고한 피면접자도 있었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칠 방법으로는 삼신 할망상 차리기가(9명, 50.0%), 어머니 한복 깔고 그 위에 상을 차리기(4명, 22.2%), 억새풀 가지를 밥 위에 꽂기(2명, 11.1%) 순으로 나타났다.

(3) 백일 행사

제주도에서는 백일 행사가 그리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면접 결과 전체 9%(12명)의 피면접자가 백일 행사를 치루었다고 하였다.

백일음식인 경우, 노인면접결과에서는 백일음식으로 45.5%가 떡을 해서 먹었다고 하였으며,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백일음식으로 79명(56.0%)이 밥을 해서 먹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떡(41명, 29.1%), 미음(11명, 7.8%), 죽(1명, 0.7%) 순으로 나타났다.

백일 행사 때 입힌 옷은 노인면접결과, 57.1%가 백일 행사 때 평상복을 입혔다고 했으며,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백일 행사 때 입힌 옷은 79명(71.8%)이 평상복을 입혔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는 색동저고리(11명, 10.0%), 한복(7명, 6.4%), 베옷(3명, 2.7%) 순으로 나타났다.

백일방법인 경우, 노인면접결과 41.7%가 사진을 찍었다고 하였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백일 행사 때 58.8%(114명)이 사진을 찍었다고 했으며, 백일 떡을 해서 나눠 먹기, 백일 상차리기, 할망을 데려다 아기의 건강을 빌기도 하였다.

(4) 돌 행사

돌 행사에 대한 노인면접과 부모에 대해 조사한 다중응답결과는 다음 <표 IV-14>, <표IV-15>와 같다.

<표IV-14> 돌 음식

구 분	내 용	사 례 수	백 분 율
전 통	고기	16	32.0
	쌀밥	26	52.0
	떡	7	14.0
	흰죽	1	2.0
	합 계	50	100.0
현 대	고기	116	27.6
	쌀밥	138	32.9
	떡	128	30.4
	흰죽	10	2.4
	팔을 꼭 먹음	23	5.5
	기타	5	1.2
	합 계	420	100.0

<표IV-14>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 39명의 피면접자(29.1%)가 돌잔치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돌상에는 주로 고기와 밥, 떡을 올려두었다고 하였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돌 행사 때 차린 음식으로는 138명(32.9%)이 쌀밥을 해서 차렸다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반면에 흰죽(10명, 2.4%), 팔을 꼭 먹었다(23명, 5.5%)가 차린 음식 중 가장 낮은 음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채소나 미역국, 과일 케익, 밤, 대추를 돌상에 차렸다고 하였다.

돌 옷차림인 경우, 노인면접결과에서는 백일 때와 마찬가지로 38.5%가 평상복을 입혔다고 하였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백일 행사 때와는 달리 돌 행사 때에는 65.9%가 한복을 가장 많이 입혔음이 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외에 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응답(7명, 3.9%)도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돌 행사 시 돌 음식으로 쌀밥이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흰죽이나 팔을 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IV-15> 돌 방법

구 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전 통	돌상차림	20	51.2
	사진 찍음	6	15.3
	할망상 차림	1	2.6
	돌잔치 함	4	10.2
	막내만 돌 해줌	1	2.6
	큰아들만 해줌	1	2.6
	애기할망이 와서 빌어줌	1	2.6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음	3	7.7
	쌀밥에 나뭇가지 꽂아줌	1	2.6
	뒤터진 바지	1	2.6
	합 계	39	100.0
현 대	돌상차림	136	26.8
	사진 찍음	140	27.6
	할망상 차림	38	7.5
	돌잔치 함	101	19.9
	막내만 돌 해줌	7	1.4
	큰아들만 해줌	8	1.6
	애기 할망이 와서 빌어줌	7	1.4
	동네사람들과 나눠 먹음	66	13.0
	쌀밥에 나뭇가지 꽂아 줌	3	0.6
	기타	1	0.2
	합 계	507	100.0

<표IV-15>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51.2%가 돌상을 차렸다고 하였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돌 행사로 돌잔치를 하고(101명, 19.9%), 돌상을 차리고(136명, 26.8%), 사진도 찍었음(140명, 27.6%)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예전에는 아기에게 지나치게 정성을 들이면 아기가 단명하거나 자주 아프다는 이유를 들어 위안을 삼기도 했지만, 현대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아기에게 만큼은 남보다 뒤지지 않게 해주기 위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돌상을 차리거나 사진을 찍어주는 행위는 지금까지도 전승이 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할망상 차리기와 쌀밥에 나뭇가지를

꽂아두는 방법은 전승이 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 처방적 습속

(1) 주술적 처방

돌림병에 걸렸을 때 심리 처방적 관습의 결과를 보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돌림병에 있어서의 처방으로는 마늘을 갖고 다니거나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방(12명, 60%)을 했다고 하였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여 예방(112명, 72.7%)을 한다고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마늘을 갖고 다니거나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방(5명, 3.2%)을 했다고 하였다. 이 외에 돌림병에 걸렸을 때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열병에 걸렸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의 결과를 보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방안에 눕혀서 좁쌀물을 먹이고 사람을 금함(4명, 44.5%), 초상집 다녀온 사람 못 오게 금줄을 매었다(2명, 22.2%)의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바람 안 쐬우고 찬 음식 먹지 못하게 한다(32명, 5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할머니 모셔다가 빌거나 홍역한 거 밖에 가서 태워버림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홍역에 걸리지 않게 예방 접종을 했다거나, 홍역에 걸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돌림병에 걸렸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으로 노인면접결과로는 마늘을 갖고 다니거나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방을 했었지만, 부모설문조사 결과로는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여 예방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은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열병에 걸렸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은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눈 다래끼가 났을 때와,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이를 뽑을 때 심리 처방 습속에 대한 노인 면접과 부모설문에 대해 조사한 다중응답결과는 다음 <표IV-16>, <표IV-17>, <표IV-18>과 같다.

<표Ⅳ-16> 눈 다래끼가 났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

구분	내용	사례수	백분율
전 통	네거리에서 둘 세 개에 그릇 깨진 것 해서 놓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서 지나가다 차버리면 다래끼가 없어짐	5	4.7
	엄지손톱을 바늘로 십자가를 그려서 그 눈에 쓸었음	3	2.8
	겉보리로 침놓듯이 그 눈을 콕콕 찌른다	22	20.8
	개똥 물을 보릿짚에 적셔서 다래끼에 바른다	3	2.8
	속눈썹을 뽑아 돌맹이 위에 얹어 놓는다	6	5.7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	27	25.5
	참기름이나 오줌, 꿀을 바른다	15	14.2
	그냥 놔 둠	7	6.6
	속내의 밑 한쪽 끝을 묶음	1	0.9
	삼거리 가운데 있는 새비나무 가지는 뽑은 후 새비나무 가운데 거꾸로 다시 꼽는다	1	0.9
	동네 침 할머니에게 찾아 빚	2	1.9
	심할 경우 침으로 찌른다	2	1.9
	화장실 돌담 하나를 바꿔 놓음	6	5.7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잠들었을 때 돼지 몰래 돼지우리의 담을 살짝 뒤집어 놓음	1	0.9
	밥을 검은 형겅에 싸서 눈다래끼 난 위에 쓱쓱 누름	2	1.9
	다래끼가 난 눈 반대방향 옷에 실로 7번 감아 놓아둠	3	2.8
	합 계	106	100.0
현 대	네거리에서 둘 세 개에 그릇 깨진 것 해서 놓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서 지나가다 차버리면 다래끼가 없어짐.	9	6.5
	엄지손톱을 바늘로 십자가를 그려서 그 눈에 쓸었음.	14	10.1
	겉보리로 침놓듯이 그 눈을 콕콕 찌름.	7	5.1
	개똥 물을 보리 짚에 적셔서 다래끼에 바른다.	1	0.7
	속눈썹을 뽑아 돌맹이 위에 얹어 놓는다.	14	10.1
	천평 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	40	29.1
	참기름이나 오줌, 꿀을 바른다.	10	7.2
	그냥 놔 둠.	22	15.9
	화장실 돌담 하나를 바꿔 놓음.	2	1.5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잠들었을 때 돼지 몰래 돼지우리의 담을 살짝 뒤집어 놓음.	1	0.7
	기타	18	13.1
합 계	138	100.0	

<표Ⅳ-16>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눈 다래끼가 났을 때의 처방으로는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는 응답이 27명(2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겉보리로 침놓듯이 그 눈을 콕콕 찌르다가 22명(20.8%)을 차지했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40명, 29.1%), 그냥 나눈다(22명, 15.9%)가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잠들었을 때 돼지 몰래 돼지우리의 담을 살짝 뒤집어 놓는다(1명, 0.7%),

개똥 물을 보리 쥌에 적셔서 다래끼에 바른다(1명, 0.7%)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 병원에 간다는 응답과 손바닥 위를 엄지손톱으로 비벼서 뜨거운 느낌이 날 때 다래끼가 난 눈 위에 댄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눈 다래끼가 났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으로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는 관습이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삼거리 가운데 있는 새비나무 가시는 뽑은 후 새비나무 가운데 거꾸로 다시 꼽는 것과 동네 칩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비는 것과 밥을 검은 형겔에 싸서 눈 다래끼 난 위에 쭈욱 누르거나 다래끼가 난 눈 반대방향 옷에 실로 7번 감아 놓아두는 것은 전승이 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IV-17>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

구 분	내 용	사 례 수	백 분 율
전 통	눈 돌리며 손으로 할머니가 비벼줌	5	8.5
	혀로 꺼냄	33	56.0
	모유를 눈에 넣어줌	8	13.6
	물로 씻음	3	5.1
	세숫대야에 물 받고 얼굴로 담근 후 눈을 떴다, 감았다 함	4	6.7
	동네에 가시를 내주는 할머니	2	3.4
	수건에 물을 적혀 빼냄	4	6.7
	합 계	59	100.0
현 대	눈 돌리며 손으로 비벼줌	22	13.3
	혀로 꺼냄	32	19.4
	모유를 눈에 넣어줌	19	11.5
	물로 씻음	61	37.0
	동네에 가시를 내주는 할머니께 가서 냄	1	0.6
	수건에 물을 적서 빼냄	26	15.8
	기타	4	2.4
합 계	165	100.0	

<표IV-17>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의 처방으로는 혀로 꺼낸다(33명, 56.0%), 모유를 눈에 넣어준다(8명, 13.6%), 세수대야에 물 받고 얼굴을 담근 후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4명, 6.7%)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설문조사 결과로서는 물로 씻는다가 61명(37.0%)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동네에 가시를 내주는 할머니께 가서 낸다(1명, 0.6%)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외에 식염수로 눈을 씻는다는 반응도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으로 노인면접결과에서는 혀로 꺼냈음을 알 수 있으며,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깨끗한 물로 씻었음을 알 수 있다.

<표IV-18> 이를 뽑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

구 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전 통	실로 잡아 당김	19	21.9
	뽑은 이를 지붕위로 “새 이는 돌아오고 뉘은 이는 돌아가라”며 던짐	65	74.7
	소금물로 헹굼	2	2.3
	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입에 물어서 오랫동안 있게 함	1	1.1
	합 계	87	100.0
현 대	실로 잡아당김	80	40.6
	뽑은 이를 지붕위로 “새 이는 돌아오고 뉘은 이는 돌아가라”며 던짐	95	48.2
	소금물로 헹굼	13	6.6
	기타	9	4.6
	합 계	197	100.0

<표IV-18>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 뽑은 이를 지붕위로 “새 이는 돌아오고 뉘은 이는 돌아가라”며 던진다(65명, 74.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실로 잡아당긴다(19명, 21.9%), 소금물로 헹군다(2명, 2.3%), 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입에 물어서 오랫동안 있게 한다(1명, 1.1%)는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설문조사 결과로서는 “새 이는 돌아오고 뉘은 이는 돌아가라”며 던진다(95명, 48.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로 잡아당긴다(80명, 40.6%), 소금물로 헹군다(13명,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병원에 가서 뽑았다, 또는 ‘집에서 이를 뽑아 본 적이 없다’라고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이를 뽑을 때의 심리 처방적 관습으로는 실로 잡아당기거나, 뽑은 이를 지붕위로 “새 이는 돌아오고 뉘은 이는 돌아가라”며 던지는 것은 전승이 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입에 물어서 오랫동안 있게 하는 것은 전승이 되어 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침 맞히기

전통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며, 제주도의 고유한 혹은 특유의 육아속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침 맞히기를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의 침 맞히기는 매우 일반적으로 행해진 풍속으로서, 아프거나, 보챌 때, 신경이 예민할 때 등 아이의 심신이 불편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마을의 침바치가 아이에게 침을 놓는 경우가 흔하였다.

노인면접결과, 76명(56.7%)의 피면접자가 아이에게 침을 맞혀 키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노인면접결과에서 피면접자들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생후 2개월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 데는 공통적이었던데 비해, 침 맞히기를 그만두는 시기로는 두 살부터 열 살 정도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듯이 아이가 이상이 있을 때(40명, 24.7%)가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침을 맞혀 본 적이 없다고 한 부모들도 있었다. 침을 맞힌 이유에 대해 노인면접과 부모설문 조사한 다중응답결과는 <표IV-19>와 같다.

<표IV-19> 침을 맞힌 이유

구분	내용	사례수	백분율
전통	열이 날 때, 잠을 못 자서, 자주 울 때, 보챌 때	61	42.6
	놀래서(경기)	39	27.3
	감기, 설사	9	6.3
	체했을 때, 아플 때	15	10.5
	כות등에 파란 줄이 섰을 때	11	7.7
	목에 종기가 있어서	1	0.7
	신경이 날카로울 때, 잘 먹지 않을 때	7	4.9
합 계		143	100.0
현대	놀래서(경기)	69	28.1
	감기, 아플 때, 체했을 때	19	7.7
	자주 울 때, 보챌 때, 열이 날 때, 잠을 못 자서	75	30.5
	כות등에 파란 줄이 섰을 때	36	14.7
	설사, 목에 종기가 있어서	3	1.2
	잘 먹지 않을 때, 신경이 날카로울 때	38	15.4
	기타	6	2.4
합 계		246	100.0

<표IV-19>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 침을 맞히는 이유는 크게 아이의 심신이 불편할 때의 치료적 목적과 사전 예방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치료적 목적으로 침을 맞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노인면접결과, 치료적 목적에서는 ‘아이가 놀랐을 때’, ‘열이 나거나 감기에 걸려 아플 때’, ‘보챌 때, 신경이 날카로울 때’, ‘잠을 잘 못 잘 때’, ‘자주 울 때’, ‘체 했을 때’, ‘설사할 때’, ‘종기가 났을 때’, ‘잘 먹지 않을 때’ 등 다양하게 그 이유가 나타났다. 사전 예방적 목적으로는 ‘콧등에 파란 줄이 섰을 때’, ‘한라산 정기 때문에 아이가 난폭해지지 않게 하려고’ 등으로 아플 징조를 예감하거나, 침을 맞혀야 아이가 순해진다는 전해 내려오는 속신에 의해 침을 맞히기도 하였다. 부모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자주 울 때, 보챌 때, 열이 날 때, 잠을 못 자서(75명, 30.5%)가 가장 많은 비율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침을 맞힌 이유로는 열이 날 때, 잠을 못 잘 때, 자주 울 때, 보챌 때의 부분이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목에 종기가 있어서 침을 맞힌다는 것은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침의 효과에 대해 노인면접과 부모설문 조사한 결과는 <표IV-20>과 같다.

<표IV-20> 침의 효과

구 분	내 용	사 례 수	백 분 율
전 통	조금 있었음	1	1.5
	효과 있었음	26	40.0
	잠을 잘 잠	9	13.8
	열도 내리고 경기도 안 함	11	16.9
	덜 보챌	2	3.1
	잘 모름	2	3.1
	아이가 편안해 짐	10	15.4
	잘 울지 않음	4	6.2
합 계		65	100.0
현 대	잠을 잘 잠, 아이가 편안해짐, 열도 내리고 경기도 않함	76	45.5
	덜 보챌, 잘 울지 않음	72	43.1
	효과가 없었음	5	3.0
	잘 모름	8	4.8
	기타	6	3.6
합 계		167	100.0

<표IV-20>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 침을 맞히고 난 후에 효과에 있어서는 65명(85.5%)이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침을 맞힌 후 덜 보챌다거나, 열이 내리고, 잠을 잘 자게 되고, 잘 울지 않았다는 등으로 응답하였다. ‘효과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침을 맞혔다’고 응답한 피면접자들도 있어 효과성뿐만 아니라 일종의 관습적으로 침 맞히기가 행해져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잠을 잘 잠, 아이가 편안해짐, 열도 내리고 경기도 하지 않았다(76명, 45.5%)가 효과가 있었다고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침의 효과에 대해서는 잠을 잘 자며, 아이가 편안해지며, 열도 내리고 경기도 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

육아문화의 인식에 대한 전통 및 현대 육아관의 차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IV-21>, <표IV-22>, <표IV-23>과 같다.

<표IV-21> 육아습관의 유사성

구 분	내 용	사 례수	백분율
전 통	유사하다	62	46.3
	다르다	9	6.7
	잘 모르겠다	10	7.5
	특별한 내용 없음	49	36.6
	기타	4	2.9
	합 계	134	100.0
현 대	유사하다	63	37.5
	다르다	16	9.5
	잘 모르겠다	42	25.0
	기타	47	28.0
	합 계	168	100.0

<표Ⅳ-21>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는 46.3%(62명)이 유사하다고 했으며, 이 외에도 ‘잘 모르겠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육아습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자식들이 바라는 대로 해주지 못했다’라고 반응을 보였다. 부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유사하다는 비율(63명, 37.5%)이 다르다(16명, 9.5%)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육아습관의 유사성에 있어서 전통적인 인식과 현대적인 인식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Ⅳ-22> 육아관의 장점

구분	내용	사례수	백분율
전통	형제간의 우애가 깊음	108	19.2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하게 키움	96	17.1
	모유를 먹여 키워서 정이 더 많음	93	16.5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 줌	73	13.0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김	86	15.3
	심신이 건강한 아이로 키움	81	14.4
	별다른 방식이 없음	14	2.5
	그냥 내버려 둠	11	2.0
	합계	562	100.0
현대	여유롭고 편리한 생활함	8	14.6
	깨끗하고 간편해 짐	7	12.7
	예쁘게 키우는 것 같음	2	3.6
	이유식이나 먹는 것이 풍부해짐	10	18.2
	돈이 많아 필요한 것을 보충해 줌	8	14.6
	아이와 놀아주기도 하고 장난감도 많이 사줌	2	3.6
	자녀수가 작아 아이에게 더 많은 신경 쓸 수 있음	2	3.6
	아이 교육에 관심 많음	10	18.2
	아버지들이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도움줌	1	1.6
	자녀 키우기에 최선을 다함	3	5.7
	예방 접종을 잘함	2	3.6
	합계	52	100.0

<표Ⅳ-22>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 이유식이나 먹는 것이 풍부함과 아

이 교육에 관심이 많다(10명, 18.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설문조사 결과로서는 응답자 108명(19.2%)이 형제간의 우애가 많음을 나타냈다. 반면에 응답자의 11명(2.0%)은 그냥 내버려두었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는 예전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육아에 대해 관심을 두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지금은 자녀의 수가 옛날에 비해 적다보니 형제들끼리의 생활하는 방법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노인면접결과에서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하게 키우고, 모유를 먹여 키워서 정이 더 많았다는 내용들을 육아관의 장점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아이 교육에 관심 많고, 이유식이나 먹는 것이 풍부해진 내용들을 현대 육아관의 장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육아관의 인식과 현대적 육아관의 인식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표IV-23> 육아관의 단점

구 분	내 용	사례수	백분율
전 통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음	104	38.1
	육을 너무 많이 해서 키움	23	8.4
	아이에 대한 무관심	29	10.7
	비위생적으로 키움	60	22.0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모가 되기 어려움	55	20.1
	기타	2	0.7
	합 계		273
현 대	아이를 과잉보호해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움	34	35.7
	아이들 능력보다 많은 것을 원함	7	7.4
	젖은 거의 먹이지 않음	6	6.3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	4	4.2
	아껴 쓸 줄 모름	3	3.2
	고마운 줄 모름	4	4.2
	예의범절의 문제	12	12.6
	아이들 조기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함	4	4.2
	쉽게 자녀들이 해달라는 것을 해줌	5	5.3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감	4	4.2
	식생활에 문제가 있음	1	1.1
	중이 기저귀를 사용함	2	2.1
	아이의 단점을 알아보려 하지 않음	2	2.1
	인스턴트 음식 먹음	1	1.1
	허약함	4	4.2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듦	2	2.1	
합 계		95	100.0

<표Ⅳ-23>에 의하면, 노인면접결과에서 응답자중 34명(35.7%)이 아이를 과잉보호해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예의범절에 대한 응답도 12명(12.6%)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중 104명(38.1%)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나머지는 비위생적으로 키움(60명, 22.0%),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모가 되기 어려움(55명, 20.1%), 아이에 대한 무관심(29명, 10.7%), 욕을 너무 많이 해서 키움(23명, 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노인면접결과에서 육아관의 단점으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부모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아이를 과잉보호해서 버릇없는 아이로 키우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는 전통 및 현대 육아관의 단점에 있어서 전통적인 육아관의 인식과 현대적 육아관의 인식의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현대부모들로부터의 산육속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조사, 비교함으로써 제주의 전통 산육속의 특징을 고찰하고, 전승실태를 조사하여 제주도의 산육속의 현대적 의의를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특유의 전통문화를 인식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60세 이상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면접에 참여한 대상들은 해방 이전 제주도에서 출생하여 영유아기를 보냈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경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여자 노인 134명으로, 2개시와 2개군의 동·읍단위로 면접대상자를 무선표집하여 개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연구는 3개 영역별로 44문항을 만들어서 제주도 4개 지역별로 250명의 유치원 학부모 대상으로 실시하여 187매를 회수하였다. 그 중 실제 분석 대상으로 취급된 표집수는 168명이었다. 자료는 전산처리 하였으며, 이 연구에 사용된 통계치는 백분비(%)이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 산육의 특징과 그 전승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태교의 필요성과 실천유무에서는 태교의 필요성인 경우 163명(97.0%)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100명(59.5%)은 태교를 실천하였다. 태교를 실천할 때의 마음가짐으로서 135명(57.2%)이 착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졌다고 했고, 136명(34.9%)은 고운 것, 좋은 말, 바른 행동을 권장했다. 이처럼 태교의 필요성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승이 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산과정에 있어서는 163명(96.4%)이 병원에서 출산을 했으며, 장소가 병원이다 보니 출산자세는 125명(76.9%)이 누운 자세로 출산을 했다. 출산 시 도움을 준 사람은 73명(35.6%)이 친정어머니로 나타났으며, 남편의 비율도 44명(21.5%)으로 높았다. 태반, 탯줄 처리방법으로는 43명(16.7%)이 땅속에 묻었

고, 74명(28.7%)은 병원에서 처리하였다고 응답했다.

출산 후 먹은 음식으로는 대부분이 미역국과 메밀수제비를 먹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전승이 되어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역이나 메밀 같은 음식들이 출산 후 궂은 피가 아래로 흘러내리게 한다고 하여 많이 먹은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제주도 전통 육아속의 특징과 그 전승실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승실태 조사 결과에 있어서는 수유방법은 모유보다는 73명(49.7%)이 분유를 2-3개월 정도 먹였으며, 수유자세는 148명(80.4%)이 앉아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유시 주의사항으로는 117명(18.0%)이 트림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유시기는 6개월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는 간격 주기로는 2일에 1회씩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목욕시키는 방법으로는 89명(45.9%)이 처음은 따뜻한 물로 시작하다가 3일이 지난 후부터 썬물을 이용한다고 나타났다. 이 외에 목욕시킬 때의 주의사항으로는 156명(24.0%)이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라고 나타났다. 이 부분에서는 수유자세와 수유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승이 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기구덕의 제작방법 및 활용방법에 있어서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 경우는 없었고, 대부분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다가 활용을 하고 있으며, 모두가 쇠로 만든 아기구덕이다. 100명(35.5%)은 아기구덕을 사용할 때 여름인 경우에는 시원한 베를 깔아서 사용했으며, 120명(51.5%)은 아기를 잠재울 때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구덕의 활용방법이 지금까지도 전승이 되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소변 가리는 시기로는 74명(41.1%)이 1년 6개월-2년 사이에 많이 가린다고 하며, 방법으로는 85명(51.8%)이 아기를 들어서 '쉬'라고 습관을 들인다고 한다. 이 때의 훈련자로서는 대부분이 어머니로 나타났다. 대소변의 훈련자가 어머니로서 지금까지 전승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기행사로서 3일 행사 때는 3일 할망상을 차렸고, 칠일행사 때는 칠일 밥을 하고 일반 옷을 입혔으며, 9명(50.0%)이 삼신 할망상을 차린다고 나타났다.

다. 백일 때에는 79명(56.0%)이 밥을 차려서 먹었고, 79명(71.8%)이 일반 옷을 입혔다고 나타났으며, 114명(58.8%)은 사진을 찍어 준다고 한다. 돌 행사 때의 음식으로는 대부분이 쌀밥과 떡을 해서 나눠먹는다고 하고, 입힌 옷으로는 한복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일 때와 마찬가지로 140명(27.6%)이 사진을 찍는다고 했으며, 136명(26.8%)은 돌상을 차린다고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승되어 오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적 처방습속으로 눈에 다래끼가 생길 때에는 40명(29.0%)이 ‘천평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고 하며, 돌림병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보건소에 가서 미리 예방 접종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에는 61명(37.0%)이 물로 씻거나 세수 대야에 물을 받고 얼굴을 담근 후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는 것이다. 이를 뽑을 때에는 대부분이 뽑은 이를 ‘새 이는 돌아오고 묵은 이는 돌아가라’며 던진다고 하며, 열병(홍역)일 경우에는 32명(52.5%)이 바람 안 쐬우고 찬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나타났다.

침 맞히기에 있어서는 40명(24.7%)이 아이가 이상이 있을 때 침을 맞히는 시기라고 하고 있으며, 침을 맞히는 이유로는 75명(30.5%)이 자주 울 때, 보챌 때, 열이 날 때, 잠을 잘 못 잘 때라고 한다. 그리고 69명(28.0%)은 놀랄 때 침을 맞힌다고 한다. 침을 맞은 후의 효과로는 잠을 잘 자고, 아이가 편안해 지고, 열도 내리고, 경기도 안 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육아문화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육아문화의 인식으로 육아습관의 유사성은 63명(37.5%)이 유사함을 나타냈으며, 42명(25.0%)은 잘 모르겠다는 결과를 보였다. 전통부모님의 육아관에서의 장점으로는 108명(19.2%)이 형제간에 우애가 깊었다는 것을 보였고, 단점으로는 104명(38.1%)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해서 아이에게 잘 해주지 못한 점을 나타냈다.

2. 결론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전승실태 연구를 통하여 산육속은 제주의 역사와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형성된 하나의 문화로서, 여기에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과

척박한 삶의 공간에 대한 극복과 부조의 정신 그리고 초월적 존재를 통한 심리적 위안을 추구하고자 했던 제주인의 의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구한 세월 속에서 발전해 온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 해주는 우리 제주인의 정서와 정신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습속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여기서 소멸되어 가는 제주도의 산육속들을 현대 생활에 맞게 적용하여 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제주도의 전통 산육문화는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분명 한반도 본토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주도 전통 산육문화의 이해를 위해 산속, 육아속, 육아문화의 인식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습속의 전승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노인대상 면접과 현대부모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기초로,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특징 및 전승실태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전통 산속의 특징은 태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임산부의 보호에 대한 점은 소극적이었으며, 출산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자력으로 이루어졌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남편의 역할이 컸다. 또한 출산했던 자세, 메밀로 만든 음식을 출산후 먹은 것은 산후 건강관리의 효과성을 추구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전통 산속의 전승실태를 보면, 태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승이 되어오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태교의 실천 유무에 있어서는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다. 이는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궁핍하였기 때문에 태교를 실천하는 데는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출산 후에 먹은 음식으로는 메밀가루가 전승이 많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메밀가루를 먹어야 지혈이 되고 피가 아래로 흘러내린다고 하여 산모들이 메밀가루를 많이 먹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메밀의 효과적 측면의 과학성과 더불어 제주도의 풍토적 조건상 밭농사를 주로 하면서 조나 메밀, 두류 등의 재배가 활발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텃줄과 태반처리에 있어서는 전승이 되어오고 있지 않은데, 이는 산모들이 대부분 병원에서 출산하면서 텃줄과 태반을 병원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둘째, 전통 육아속의 특징은 수유태도나 이유시기, 대소변 훈련 등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찾기 힘들었던 점과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승 할망에게 감사 드리는 치셋메와 삼일 상을 차리는 사흘메가 중시되었으며, 칠일이나 백일, 돌을 기념하는 행사는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아기구덕은 활용도에 있어서 매우 높았으며, 사용 시기도 길었던 점을 특징지을 수 있다. 또한 심리 처방적 습속으로 침 맞히기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도 전통 육아속의 전승실태를 보면, 수유시기, 이유 시기는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고, 수유자세와 수유시의 주의사항은 대부분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는 예전에는 대개 노동으로 보내는 시간이 많고 자립적 생활의지가 중요시되는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보면 수유와 이유 등에 관심을 쏟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기구덕의 제작방법은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고, 활용방법은 상대적으로 전승이 많이 되어 오는데, 이는 누구나 아기를 돌볼 수 있게끔 도와준 매개체로서 사실상 대리모의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대소변 가리는 훈련방법은 전승되어 오고 있지 않고, 대소변 가리는 시기와 훈련자는 전승이 많이 되어 오는데, 이는 대소변 가리는 시기가 수유하는 시기이고 주로 양육의 책임과 역할은 어머니에게로 집중되어지는 시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아기행사 때 할망상 차리기와 행사 때의 방법, 음식, 입힌 옷 등이 조금씩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기에게 지나치게 정성을 들이면 아기가 단명하거나 자주 아프다는 이유로 마음의 위안을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심리적 처방습속 중에서 돌림병,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열병에 걸렸을 때의 부분은 전승되어 오지 않고, 눈 다래끼가 났을 때와 이를 뽑을 때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전승이 많이 되어 오는데, 이는 자립적 극복 의지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전통사회를 살던 주체들의 능동적 대처라고 해석된다. 침 맞히기는 침을 맞힌 시기, 맞힌 이유, 효과 부분에 있어서 전승이 많이 되어 오는데, 이는 제주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관습적으로 행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문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면, 육아관의 장점과 단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육아습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사회 구조적인 것과 인습적인 것으로서 강한 생활력, 독립심, 근면성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적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출산 이전부터 시작하여 만4세 까지만 영역을 설정하여 전승실태를 조사한 바, 제주도 육아문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해 취학 전 아동기까지의 육아문화에 대한 전승실태를 조사하는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전승내용 중 놀이에 관한 부분은 다루지 못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영유아기 행해졌던 전통놀이의 전승실태 또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문정(1988). 일부 제주지역의 전통적 산후 건강관리 실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부자(1976). 제주도의 산후숙. **한국민속학**, 제 9집, 93-111.
- 김경학(1986). 아동기의 문화전승과 습득과정.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항원(1997). 제주인의 의식. **제주리뷰**, 제 3호, 66-77.
- 김항원(1998).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항원·김진영·고성준·강근형(2000). **전환기 제주의 의식과 제주정신**.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김혜숙(1998). 가족의 성격을 통해서 본 제주인의 의식구조(신행철 편, **제주사회론2**, pp. 403-424). 서울: 한울아카데미.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켄당**.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문재희(1987). 제주도의 육아속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1988). 한국사회에 있어서 대중문화와 전통문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성대(2001).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제주: 도서출판 각.
- 신행철(1998). **제주사회론2**. 서울: 한울아카데미.
- 오미경(1991). 전통사회의 태교사상과 산육속에 대한 연구: 조선시대 문헌 중심으로. 국민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영(2001). 한국 전통 산속의 교육적 의의.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복(1979). 조선시대 산속 연구. **한국민속학**, 제 11집, 47-64.
- 이경화(2003). **제주도 전통 산육속 비교고찰**. 비교민속학 연구.
- 유안진(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윤치부(2000).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여성의 삶(제주여성사 정립연구를 위한 2

- 차 워크숍자료, pp. 7-22).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이창기(1999). **제주도의 인구와 가족**. 대구: 영남대학교출판부.
- 정순덕(2000). 제주도 여성교육의 역사(제주여성사 정립연구를 위한 2차 워크숍자료, pp. 33-57).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 제주도(1993). **제주의 민속(1)**. 제주: 아라출판.
- 제주도교육청(1996). **제주의 전통 문화**. 제주: 제주도교육청.
- 조혜정(1982). **제주 해녀사회 연구**. 서울: 심설당.
- 하수연(1999). 한국 전통 태교의 금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양명(1999). 한국 산속의 체계적 이해를 위한 시론. **비교민속학**, 제 16호, 109-127.

부 록

부록 - 1.

<제주도 전통 육아문화>에 대한 노인 면접지

부록 - 2.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전승>에 관한 설문지(학부모용)

(부록-1)

<제주도 전통 육아문화>에 대한 노인 면접지

◎ 일반사항

면접자성명		성별		교직경력		연령	만 세
소속유치원	주소) 전화)						
면접일자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면접장소		피면접자 와의 관계		

◎ 면접지침

1. 피면접자는 현재 만60세 이상(혹은 1942년 이전 출생자)의 제주도에서 출생한 분으로, 전통 사회에서 양육되었거나 비교적 전통적인 방식으로 육아에 직접 참여한 노인입니다.
2. 면접장소 및 시간은 피면접자(노인)나 면접자가 편안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면접은 연속적으로 하지 않고 몇 차례로 나누어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3. 면접 시작 전에 연구내용 및 면접방식에 대해 알기 쉽게 피면접자에게 설명해주시요.
 - 1)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안미선의 제주도의 옛날 아이키우기에 관한 연구를 위해 면접한다.
 - 2) 옛날에는 혹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3)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에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등.
4. 면접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협조를 간곡히 부탁해 주십시오.
5. 면접과정에서는 질문은 피면접자가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제시합니다.
6. 피면접자의 대답은 확인 후 기재하는데, 피면접자가 말하는 그대로(사투리) 옮겨 씁니다. 면접과정에서 기재하기가 어렵다면, 녹음하여 추후 전사하거나 주요 단어를 기록해 둔 후 면접직후에 자세히 기재합니다.
7. 분야(I-VI)별로 제시된 질문 이외에 보충사항(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여 따로 기록해 주십시오.
8. 기록용지는 문항을 표시하여 따로 첨가할 수 있습니다.
9. 면접에 앞서 질문을 읽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연구자 및 연구보조원에게 문의해주시요.
10. 질문은 아동의 발달단계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마다 괄호()안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질문해주시요.

I. 다음은 잉태 전-출생과정까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I-1. 할머니는 태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위해 태교를 했었습니까?
태교를 했었다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I-2. 임신전·후의 심신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임신전후에 먹은 음식과 그 이유, 임신부의 마음가짐이나 주의할 행동, 금기사항 등)

I-3. 출산과정은 어떠했습니까?(출산했던 장소, 출산자세, 출산시 도움 준 사람, 출산후 먹은 음식, 태반이나 탯줄, 배꼽의 처리방법 등)

II. 다음은 출생-세살(만2세)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II-1. 수유(젖먹이기)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수유한 기간, 젖땀 시기, 수유자세 및 방법, 수유시 주의할 사항 등)

II-2. 아기목욕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시기, 방법, 주의사항)

II-3. 주요의례(아기행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까?(의례의 종류(칠, 백일, 돌 등), 의례방식- 먹인 음식, 아기 의복, 기타 특이사항 등)

Ⅲ. 다음은 세살(만2세)-다섯살(만4세)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Ⅲ-1. 대소변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시기, 관련놀이, 방법 등)

Ⅲ-2. 심리 처방적 관습(비방)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예. 눈 다래끼가 났을 때, 돌림병이 돌 때, 눈에 가시가 들어갔을 때, 이를 뽑았을 때, 열병이 났을 때 등.. 했던 행동)

Ⅳ. 다음은 전통육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Ⅳ-1. 아이에게 침을 맞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침을 맞히는 이유, 시기, 효과 등)

Ⅳ-2. 아기구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제작방법, 활용도, 관리방법등)

V. 다음은 전통 육아문화의 전승과 관련 있는 질문입니다.

V-1. 옛날 부모님들의 아이 키우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 단점)

V-2. 할머니(할아버지)는 자녀를 키울 때, 예전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던 방식과 비슷하게 키웠다고 생각하십니까?(유사점과 차이점)

V-3. 아이키우기에 할머니(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시오(육아방식, 육아관 등).

V-4. 요즘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장단점)

- 대단히 감사합니다.-

◎ 피면접자 인적사항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년 월 일(음, 양)	4) 학력	
5) 가족구성(혼인전)	()남 ()녀	중 ()째	
6) 혼인한 시기	년 월 ()세때	7) 자녀 수	()남 ()녀
8) 자녀연령	첫째: 남 ()세 여()세 둘째: 남 ()세 여()세 셋째: 남 ()세 여()세 넷째: 남 ()세 여()세 다섯째: 남 ()세 여()세		
9) 현재 거주지	도 시(군)	동(읍)	면 리
10) 현재 가족구성	부부거주, 일인거주, 2세대구성, 3세대이상 구성, 기타()		
11) 혼인전 주거주지(고향)	도 시(군)	동(읍)	면 리
12) 현 생활사			

◎ 기재요령

<p>※ 인적사항은 면접과정을 모두 마친 후에 조사하여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면접자와 피면접자와의 관계 및 면접상황에 따라서는 면접 시작 전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p> <p>4) 학력은 공식적인 학력을 기재하고, 노인대학 등의 활동은 12)번에 기재하도록 합니다.</p> <p>5) 피면접자의 혼인 전 형제자매 관계를 기재합니다.</p> <p>6) 정확한 연도를 상기하기 어려울 경우, 당 연령을 기준으로 나이를 기재하도록 합니다.</p> <p>7) 피면접자의 현 자녀수를 기재합니다.</p> <p>8) 출생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성별에 따라 당 연령(면접일 기준)을 기재한다. 정확한 연령을 모를 경우, 대략의 나이를 기재하고 띠를 추가 질문하여 옆에 표기해 두도록 합니다.</p> <p>10)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족형태에 표시합니다.</p> <p>11) 출생에서 유소년기(출가 전)까지 가장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혹은 고향)을 기재합니다.</p> <p>12) 현재의 생업, 여가활동, 소속단체 등에 관해 약술합니다.</p>
--

(부록-2)

제주도 전통 산육속의 전승에 관한 설문지(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연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안미선입니다.

제주도의 전통적인 육아방식이 오늘날 현대 부모님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자, 이 설문지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질문들에는 정답이 있는 것
이 아니고, 부모님께서 자녀를 키우면서 경험하신 내용대로 답
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 설문결과는 제주도의 전통 육아방식과 그 전승에 대한 귀
중한 자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본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되
고 연구 목적 이외는 사용치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가정 내 평안을
기원합니다.

2003년 2월

탐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연구자 : 안 미 선

지도교수 : 이 경 화

꼭 읽어보십시오!

귀하가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면서 겪은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잘 읽고 해당 **번호 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태교 및 임신전후의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

1-1 <태교의 필요성>

태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기타()

1-2 <태교실천유무>

자녀를 위해 태교를 했었습니까?	① 태교를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혹은 할 수 없었다
	③ 기타 ()

1-3 <태교 및 임신전후 심신관리>

(해당되는 곳은 모두 번호 위에 V표 해주시고 다른 사항이 있으면 기타란에 적어주십시오.)

내 용	항 목
태도, 마음가짐	① 착하고 편안한 마음 갖기
	② 고운 아기 낳았으면 하는 마음 갖기
	③ 기타 ()
언행	① 건강한 아이 사진보기
	② 고운 것, 좋은 말, 바른 행동하기
	③ 기도, 노래 들려주기
	④ 보름이나 초하루에 할망당 가기
	⑤ 깨끗한 곳에서 소변보기
	⑥ 남을 도와주기
	① 불난 곳 가지 않기, 무서운 곳 피하기
	② 장애인 가까이서 보지 않기
	③ 나쁜 이야기하지 않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 하지 않기, 싸우지 않기
	④ 궂은 일 보지 않기, 나쁜 사람, 물건 보지 않기
	⑤ 소, 조랑말 조심(말 줄 밟지 않기)
	⑥ 놀라는 일 없게 하기
	⑦ 아무데나 앉지 말기, 구석에 앉지 말기, 빗자루 깔고 앉지 마라
	⑧ 신랑, 신부 처음으로 보지 말기
	⑨ 급히 물려도 빨리 나가지 말기
⑩ 물건을 품속에 숨겨 다니지 말기, 도둑질하지 않기, 살생을 금하라	
⑪ 구석으로 가지 않기, 문턱 넘지 마라	
⑫ 몸을 차갑게 하지 않기, 약 먹이지 않기	
⑬ 술, 담배 금지, 밤에 외출금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기	
⑭ 더러운 곳 앉지 않기, 무거운 것 들지 않기	
⑮ 기타 ()	

음식	권장했던 음식	① 예쁜 것만 먹기, 음식 잘 먹기 ② 과일 먹기(사과, 앵두, 산딸기, 땡유지)
		③ 미역국, 메밀음식 ④ 보리밥, 조밥 ⑤ 고기, 생선, 삶은 닭
		⑥ 고구마, 감자 ⑦ 매운 것 ⑧ 약술 ⑨ 한약 ⑩ 잉어
		⑪ 채소, 무 ⑫ 밀가루 빵 ⑬ 녹두죽, 깨죽, 강냉이 죽, 쫄면
		⑭ 기타 ()
	금지했던 음식	① 썩은 과일 먹지 않기 ② 음식주의 ③ 딱딱한 음식 조심
		④ 신 거 먹지 말기 ⑤ 홍어회 ⑥ 고구마 ⑦ 밀가루 음식
		⑧ 닭고기, 토끼고기, 꽃게, 삶은 달걀, 돼지고기
⑨ 기타 ()		

- 출산 및 산후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2-1 <출산과정> (해당되는 곳은 모두 번호 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항 목
출산했던 장소	① 집 ② 발 ③ 병원 ④ 기타 ()
출산자세	① 앉은 자세 ② 누운 자세 ③ 구덕에 엎어져서
	④ 기타 ()
출산 시 도움을 준 사람	① 시어머니 ② 동네사람 ③ 산파 ④ 친정어머니 ⑤ 친척 분 ⑥ 남편
	⑦ 외할머니 ⑧ 기타 ()
출산 후 먹은 음식	① 메밀수제비 ② 미역국 ③ 한약 ④ 죽 ⑤ 돼지 죽 ⑥ 밥 ⑦ 된장국
	⑧ 막걸리 데워서 돼지기름에 타서 먹음 ⑨ 기타 ()

2-2 <태반, 태줄처리>(해당되는 곳에 모두 V 표해주십시오)

내 용	항 목
태반, 태줄, 배꼽의 처리방법	①태반, 태줄은 바다에 버림 ②태반, 태줄은 문음 ③태반, 태줄은 태움
	④태반, 태줄은 보관 ⑤배꼽은 방에 걸어둠 ⑥배꼽은 종이에 싸서 버림
	⑦배꼽은 주머니에 싸서 보관 ⑧배꼽은 태움 ⑨병원에서 처리
	⑩기타()

- 다음은 만2세 전후 유아의 육아방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3-1. <수유 및 이유>(해당되는 곳은 모두 번호 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항 목	
젖먹인 기간	① 1주일 ② 1년 ③ 25개월 정도 ④ 3살 ⑤ 만5세 ⑥ 10살 ⑦ 기타 ()	
	① 앉아서 ② 누워서 ③ 기타 ()	
젖먹일 때 주의했던 사항 (해당되는 곳은 모두 표시)	① 깨끗하게 씻음 ② 젖이 많이 나와 숨이 막힐 우려가 있으므로 입으로 붙여줌 ③ 초유 조금 버림 ④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손으로 조절 ⑤ 트림시킴 ⑥ 코가 막히지 않게 조심 ⑦ 젖 잘 먹는다고 말하지 않음 ⑧ 지방이 많은 음식은 금함 ⑨ 양쪽을 번갈아 가며 먹음 ⑩ 돼지족발 먹음 ⑪ 꿀을 많이 먹음 ⑫ 매운 음식금지 ⑬ 기타 ()	
	이유식을 시작한 시기	① 6개월부터 ② 1년부터 ③ 1년 6개월부터 ④ 2년부터 ⑤ 2년 이상 ⑥ 기타 ()

내 용	항 목	
백일	차린 음식	① 밥 ② 미음 ③ 죽 ④ 떡 ⑤ 기타 ()
	입힌 옷	① 평상복 ② 색동저고리 ③ 한복 ④ 배옷 ⑤ 기타 ()
	방법 (특이사항)	① 사진 찍음 ② 할망을 데려다 건강 기원을 빔 ③ 백일 상
		④ 백일 떡 해서 나눠 먹음 ⑤ 기타 ()
돌	차린 음식	① 고기 ② 쌀밥 ③ 떡 ④ 흰죽 ⑤ 팔을 꼭 먹음
		⑥ 기타 ()
	입힌 옷	① 평상복 ② 누빈 저고리 ③ 한복 ④ 새 옷
		⑤ 명주옷 ⑥ 배옷
		⑦ 기타 ()
	방법 (특이사항)	① 돌상차림 ② 사진 찍음 ③ 할망상 차림 ④ 돌잔치 함
		⑤ 막내만 돌해줌
		⑥ 큰아들만 해줌 ⑦ 애기 할망이 와서 빌어 줌
⑧ 동네 사람들과 나눠먹음		
	⑨ 쌀밥에 나뭇가지 꽂아줌 ⑩ 뒤터진 바지	
	⑪ 기타 ()	

- 다음은 심리처방적 관습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의 방법 중 사용해 본 적이 있는 방법을 모두 번호 위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5-1. 심리 처방적 관습

내 용	항 목
눈 다 래 끼	① 네거리에서 돌 세 개에 그릇 깨진 것 해서 놓으면 다른 사람이 몰라서 지나가다 차버리면 다래끼가 없어짐
	② 엄지손톱을 바늘로 십자가를 그려서 그 눈에 찔었음
	③ 걸보리로 침 놓듯이 그 눈을 콕콕 찌르거나 고름을 뺌
	④ 개똥 물을 보리 쥌에 적셔서 다래끼에 바른다
	⑤ 속눈썹을 뽑아 돌맹이 위에 얹어 놓는다
	⑥ 천평 지평이라고 발바닥에 쓴다
	⑦ 참기름이나 오줌, 꿀을 바른다 ⑧ 그냥 놔 둠
	⑨ 속내의 밀 한쪽 끝을 묶거나 다래끼가 난 눈 반대방향 옷에 실로 7번 감아 놓아둠
	⑩ 삼거리 가운데 있는 새비나무 가지는 뽑은 후 새비나무 가운데 거꾸로 다시 꼽는다
	⑪ 동네 침 할머니에게 찾아 빔 ⑫ 화장실 돌담 하나를 바꿔 놓음
	⑬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잠들었을 때 돼지 몰래 돼지우리의 담을 살짝 뒤집어 놓음
	⑭ 밥을 검은 형겜에 싸서 눈다래끼 난 위에 쓱쓱 누름
	⑮ 기타 ()

내 용	항 목
돌림병	① 무당에 의지하여 병을 고쳐달라 빙
	② 마늘을 갖고 다니거나 거의 밖에 나가지 않고 예방함
	③ 수저를 삶는다 ④ 보건소에 가서 접종하여 예방
	⑤ 상에 밥을 안 차리고 밑바닥에서 먹음 ⑥ 팔죽 끓여먹음
	⑦ 인도고장 꽃을 다려 먹음 ⑧ 썩물로 목욕시킴
	⑨ 기타 ()
눈에 가시가 들어갔 을 때	① 눈 돌리며 손으로 비벼줌
	② 혀로 꺼냄
	③ 모유를 눈에 넣어줌
	④ 물로 씻음, 세수 대야에 물 받고 얼굴로 담근 후 눈을 찼다, 감았다 함
	⑤ 동네에 가시를 내주는 할머니께 가서 냄
	⑥ 수건에 물을 젖혀 빼냄
	⑦ 기타 ()
이를 뽑을 때	① 실로 잡아당김
	② 뽑은 이를 뽑은 이를 지붕위로 "새 이는 돌아오고 뉘은 이는 돌아가라" 며 던짐
	③ 소금물로 헹굼, 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입에 물어서 오랫동안 있게 함
	④ 기타 ()
열병 (홍역)	① 방안에 눕혀서 좁쌀 물을 먹이고 사람을 금함
	② 바람 안 쐬우고 찬 음식 먹지 못하게 함
	③ 초상집 다녀온 사람 못 오게 금줄을 매었음
	④ 할머니 모셔다 빙
	⑤ 홍역한거 밖에 가서 태워버림
	⑥ 기타 ()

5-2. <침 맞히기>(해당되는 곳에 모두 V 표해주십시오)

내 용	항 목
침을 맞힌 시기	① 2개월~1년 ② 24개월까지 ③ 3살~5살 ④ 6~11살 ⑤ 음력9, 19, 29일
	⑥ 한 달에 1회 - 3회 ⑦ 음력 13일, 17일 ⑧ 이상이 있을 때 ⑨ 3일 동안
	⑩ 기타 ()
침을 맞힌 이유	① 놀래서(경기)
	② 감기, 아플 때, 체했을 때
	③ 자주 울 때, 보챌 때, 열이 날 때, 잠을 못 자서
	④ 콧등에 파란 줄이 섰을 때
	⑤ 설사, 목에 종기가 있어서
	⑥ 잘 먹지 않을 때, 신경이 날카로울 때
	⑦ 기타 ()
침을 맞은 후의 효과	① 잠을 잘 잠, 아이가 편안해 짐, 열도 내리고 경기도 안 함
	② 덜 보챔, 잘 울지 않음 ③ 효과가 없었음 ④ 잘 모름
	⑤ 기타 ()

- 다음은 전통 육아문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6-1. <육아습관의 유사성 >

유사성의 유무	① 유사하다 ② 다르다 ③ 잘 모르겠다
	④ 기타()

6-2. <옛날 부모님의 육아관 >(해당되는 곳에 모두 V 표해주십시오)

내 용	항 목
장점	① 형제간에 우애가 깊음 ②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강하게 키움
	③ 모유를 먹여 키워서 정이 더 많음 ④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줌
	⑤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김
	⑥ 심신이 건강한 아이로 키움 ⑦ 별다른 방식이 없음
	⑧ 그냥 내버려 둠 ⑨기타 ()
단점	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음 ② 욕을 너무 많이 해서 키움
	③ 아이에 대한 무관심 ④ 비위생적으로 키움
	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부모가 되기 어려움
	⑥ 기타 ()

7. 다음은 귀하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성 별	① 남 ② 여	2) 나 이	만 세
3)학 력	①무학 ②초등졸 ③중학교졸 ④고등학교졸 ⑤전문대졸 ⑥ 4년제대졸 ⑦ 대학원 졸업이상 ⑧기타()		
4)가족구성(혼인전)	()남	()녀	중 ()째
5)결혼한 연령	()세 때	6)현재자 녀수	()남 ()녀
7)자녀연령	첫째 : 남 () 세 여 () 세 둘째 : 남 () 세 여 () 세 셋째 : 남 () 세 여 () 세 넷째 : 남 () 세 여 () 세 다섯째 : 남 () 세 여 () 세		
8)현재 거주지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⑤ 기타 ()		
9)현재 가족구성	① 부부거주 ② 일인거주 ③ 2세대구성 ④ 3세대구성		
	⑤ 기타 ()		
10)혼인전 거주지	① 제주도 ② 서귀포시 ③ 북제주군 ④ 남제주군		
	⑤ 기타 ()		
11)현 직업			

대단히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ransmission of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and Care in Jeju

Mi-seon An

Early Childhood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Tamna University

Advisor: Kyeong-hwa Lee, Ed.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and care had been handed down in Jeju in an effort to compare it with modern child-rearing practices and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It's planned to hold an individual interview with elderly people and to conduct a survey on parents whose children attended kindergartens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First,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and care in Jeju? In which way has it been transmitted?

Seco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customs of child-birth and care How has it been handed down?

Third,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view of child-birth and care cultur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34 elderly women and 250

kindergarten parents in Jeju. The instruments used in this study were questionnaire and interview data.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little specific concern for antenatal training. Pregnant women weren't provided special care, and they gave birth for themselves in most cases. The childbirth posture was distinctive, and another notable thing was that women ate food made by buckwheat after childbirth. The necessity of antenatal training had traditionally been mentioned and buckwheat flour had been handed down as what they ate after childbirth, but there was no noticeable tradition about the treatment of the umbilical cord and placenta.

Second, no strict restriction was placed on suckling, weaning time and evacuation training. Chisame and Saheulpe were considered important, which respectively referred to giving thanks to Samseung Halmang immediately after childbirth and having a small party three days after birth. Agigudeok was in wide use for a long time, and the frequently used folk psychotherapy was applying acupuncture.

Third, the conventional and modern outlook on child rearing was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there was little gap between their views on the similarity of child-rearing habits.